



윤석열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 찾아 상인 격려 및 오찬... 현직 대통령 96년 만의 방문

윤석열 대통령,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서울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려, 꽃게, 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 대하, 장어, 오징어, 민어, 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요즘 장사는 어떤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상인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보여주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투명하

다"고 설명했고, 한 상인은 경기가 어려울 때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요즘 많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하자 주변의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또한, 대통령은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로서 오늘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연말까지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이 수산시장에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해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이 해결되어서 이곳 상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까지 했다. 오찬을 마치고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장사 잘

되시라"고 덕담을 전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전 수산물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 사진을 함께 찍었다. 시민들은 인사를 나누며 "대통령 파이팅"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박세형 노량진 수산시장 대표이사과 임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한편, 오늘 노량진수산시장 내부에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상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민생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최광수/기자



경북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 '본격 활동'

구룡포수협 위판장 방문,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료 수거 참관
 어업기술원에서 검사 전 과정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적합' 확인
 주부모니터링단원 김순기,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전 과정 직접 참여, 결과를 투명하게 전파해 방사능 검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최선"



도 어업기술원은 지난 31일,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이 경북 수산업 진진기자인 구룡포수협 위판장을 방문,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를 참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경매 위판장에서 하역된 어획물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방사능 검사를 위해 당일 어획된 참가자미·아귀·소라 등 5개 품종 시료 수거 후, 곧바로 어업기술원 본원으로 이동, 시료 전처리/검사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검사 결과의 적합 여부와 '경북바다환경정보' 앱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했다.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은 지난 8월 25일, 관내 소비자단체 및 수산물 생산자단체 여성 30명을 위촉해 발대식을 열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앞두고 9월 한 달 동안 선물용으로 인기 높은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복, 대게·홍게와 오징어, 문어 등의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주부모니터링단은 경북어업기술원에

서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과 결과 분석 확인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방사능 의심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는 경북어업기술원은 올해 8월 말까지 가자미 48건, 볼락류 29건, 대구 20건, 오징어 15건, 대게·홍게 7건 등 포함 총 379건을 검사해,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 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주부모니터링단원인 김순기 씨는 "한 가정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부이자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경북 동해안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전파해 방사능 검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술을 품은 경기도 디엠지, 'DMZ 전시 : 체크포인트' 개막

경기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8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디엠지 전시 : 체크포인트' 개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한국의 분단 상황과 디엠지 접경지역을 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DMZ 전시 : 체크포인트'가 31일 파주에서 개막했다.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최재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환영사와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 날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개막선언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경기북부 디엠지 접경지역이 '더 큰 평화'의 중심지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라전망대의 브리핑 이후에는 이번 전시를 맡은 김선정 큐레이터(전 광주 비엔날레 대표)가 기획 의도와 참여한 작가들을 소개했다. 개막식 참가자들은 도라전망대와 캠프그리브스, 평화누리를 참여작가들을 만나 작품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는 장수미 현대무용가가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였다.

총 27명의 작가가 60여 점의 작품으

로 참여한 이번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파주(도라전망대, 캠프그리브스, 임진각 평화누리),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연천(연강갤러리, 경원선 역사 등)에서 진행된다.

'DMZ 전시 : 체크포인트'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장수미 현대무용가의 퍼포먼스는 9월 5일, 8일, 23일 총 3회, 11시 40분에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9월 2일에는 연천 미술협회 회원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누리를 방문한 관람객들과 함께 완성하는 '함께 그리는 더 큰 평화' 워크숍이 진행되고, 그 결과는 파주와 연천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9월 9일에는 조경진, 조혜령 작가 듀오가 서울에서 출발하는 전시 해설 버스투어에 함께 탑승해 함께 전시 공간으로 이동하며 전시작 '식물평행세계'에 대한 리서치, 작품 제작 뒷 이야기 등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전시 방문객의 편안한 관람을 위한 다양한 수단도 마련했다. 서울 아트선재센

터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하는 전시해설 버스투어와 매일 오후 2시 40분에 임진각을 출발해 캠프그리브스-도라전망대-통일촌을 경유하는 DMZ 평화관광 전시해설 버스투어는 물론, 평화곤돌라 탑승예정객을 대상으로 매일 11시와 13시에 운영하는 평화곤돌라 연계투어 등이 있다.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종합축제다. 정전 70년을 맞아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11월까지 DMZ의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경기북부 디엠지 일원에서 진행한다.

김병삼/기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9대 남원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서도역(전북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2)

K-배터리 포항, 이차전지 최강도시로의 기틀 마련!

이철구 경북도의회운영위원장,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이차전지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시험평가인증시설 지원 제도화



이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모바일 기기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경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 7월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이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경북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술인력양성,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시험·평가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지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추진해 왔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육성,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다. 특히,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인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경주 등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이차전지산업의 국내 최대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

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새로운 미래가 될 이차전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전후방 산업연계 등으로 경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참고로, 포항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2030년 경북 양극재 연간 100만톤 생산, 이차전지 소재 전문인력 7,200명 양성, 양극재 선도기업 매출 72조원을 거둔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희 시의원, 마약치료비 ‘외상’하는 서울시...마약치료보호 의료기관에 재원과 인력 추가지원 필요

운영희 시의원, “마약치료 예산 확보, 치료비 지급시기 조정 등 체계 개선해야”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던 서울시의회 운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지난 29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 발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 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31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병원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운영희 의원에게 따르면, 서울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서울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곳이 있지만 사실상 마약중독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서울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한 병원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약치료비 미수금이 5억 원에 달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8년 스스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해제 했다.

이후 서울 마약중독자 대부분이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약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치료

보호기관 예산집행액과 미지급금 내역에 따르면, 마약중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치료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매해 마약치료비 예산이 부족해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운영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치료비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치료비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비 지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운영희 의원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마약중독자가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마약치료보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에 마약중독 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몽골 대구·경북 연수 실사단 대구시의회 방문

향후 지속적으로 몽골 기업인 등의 대경 연수 추진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이재화, 손한국 의원은 지난 달 31일(목) 오후 4시, 대구시의회를 방문한 몽골 HR클럽 일행과 연담을 가지고 몽골 기업인들의 대구 연수를 환영했다.

몽골 HR클럽(Human Resource Manager's Club)은 몽골의 인사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2012년에 결성되어 현재 약 16,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NGO(비정부기구)로 대기업, 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R클럽의 이번 대구 방문은 몽골 기업인들의 대구·경북 연수 및 의료·문화관광 교류 추진을 위한 사전시찰

과 협의, 몽골파크골프 활성화에 대한대한국립협회와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구에서의 의료관광을 시작으로 첨단산업현장 방문, 파크골프 교육, 문화관광 등 4박5일 일정을 소화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몽골 기업인 등의 대구·경북 연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몽골 기업인들의 대구·경북 연수를 적극 환영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대구의 맛과 멋을 맘껏 즐겼으면 좋겠다”며, “문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성공적 임무 수행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및 우호협력 강화

유라시아 대장정 공동단장(김효정, 성장용 의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올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8.22(화)~9.3(일)까지 11박1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과 성장용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한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등과 우호협력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방문도시별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유라시아 대장정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기리는 기념 추모행사, 부산 시스터블리지인 110번 유치원 방문 교류행사, 현지 정부 관계자 및 청년과 교류하는 ‘친선의 밤’행사를 진행했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을 기념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과 부산 중앙고 농구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리바운드’를 해외 최초로 상영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과 ‘부산-사마르칸트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 주요도시와의 협력관계 구축과 도시외교 외연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앞 잔디마당에서 파리시민을 대상으로 부산데이 인(in) 파리행사를 열었으며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부산데이에서는 한국 음식 시식, 한복입기 체험, 부산 관광홍보, 케이팝(K-POP)댄스 대회, 동아대 태권도팀의 멋진 퍼포먼스 등을 통해 부산

에 대한 매력을 유감없이 알리므로써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공동단장으로 참석한 김효정 의원은 “이번 유라시아 대장정의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대장정을 통해 해외에서 한류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부산의 도시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성장용 의원은 “가는 곳마다 대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방문도시 관계자들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번 여정을 통해 방문도시들과의 우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준 대원들과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세지농협 창립 기념식 ‘감사패’ 받아

풍요로운 나주와 세지농협 발전 공로 인정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 나주2)은 지난 29일 나주 세지농협 창립 5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은상 세지농협 조합장, 박종택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신경훈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장, 김영백 세지면장 등 관내·외 조합장, 세지면 기관 및 사회단체장,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지농협협동조합은 최명수 의원이 풍요로운 나주를 만드는 데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세지농협 발전을 위해 세지북초등학교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로 나선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앞으로도 세지농협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은상 세지농협조합장은 세지농협 창립 51주년 기념사를 통해 “농업인의 행복한 농협이라는 비전으로 조합원 소득증대와 신뢰받고 사랑받는 농협, 2027년까지 경제사업 매출 700억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배/기자



이상일 용인특레시장,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하고 시민들과 정담

별빛마당 야시장 3일까지 사흘간 열려... 먹거리, 살거리 많고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
이상일 시장, “중앙시장 일대 혁신 사업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토록 해서 186억 국도비 확보...
향후 4년간 652억 투입해 시민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



1일 오후 6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용인특레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에서 이상일 시장, 이순환 중앙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별빛마당 야시장' 개장식이 열렸다. 중앙시장이 용인특레시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개설한 야시장에는 먹거리, 살거리가 풍부한데다 흥겨운 공연도 진행돼 그야말로 발디딜 틈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았고, 청년층이 특히 많았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60년 전통의 용인중앙시장에

서 처음으로 야시장을 개장한 것을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중앙시장 일대의 대변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18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고, 여기에 시비를 투입해서 앞으로 4년간 652억을 들여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불거리, 살거리, 먹거리를 다양화하고 질을 높일 것이며, 주차공간·문화공간·청년 창업 공간도 더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3월 이동·남사 지역 215만평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한다. 5개의 팹(Fab)과 15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생활편의시설과 상업시설까지 함께 자리 잡게 되면 국가산단과 그 주변에서 일하게 될 근로자가 1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원삼면의 SK

하이닉스 클러스터에도 4개 팹과 50여 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므로, 이곳에도 몇 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게 된다. 앞으로 용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므로 용인중앙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대거 늘어날 것인 만큼 중앙시장과 주변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것이다. 상인회와 시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장식 이후 시장 곳곳을 돌며 시민·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물건을 사기도 했다. 이 시장은 기념사진을 찍자는 시민들의 요청에 일일이 응하면서 정담을 나눴다.

야시장에서는 바베큐, 떡볶이, 전, 약과 등 각종 먹거리와 수제맥주, 전통주 등을 파는 점포가 많이 들어섰고, 시민들이 워낙 많이 찾는 바람에 여러 곳에서 긴 줄이 형성됐다. 또 다양한 수공예 제품 등을 판매하는 장터와 벼룩시장도 운영됐다. 노래, 댄스,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주 시음행사, 떡메치기, 식당 찾기 이벤트도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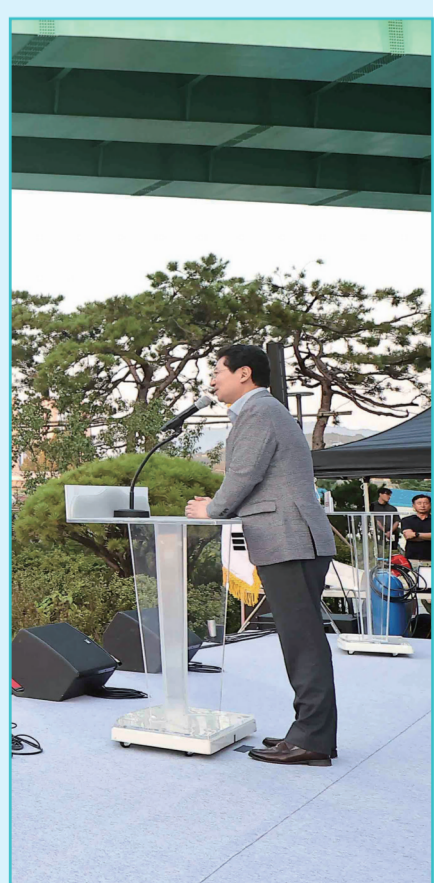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는 야시장을 개설하

기 위해 용인중앙시장상인회와 용인특레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힘과 지혜를 모았다.

이순환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용인중앙시장 야시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참으로 많이 감격스럽다. 도와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앙시장이 먹거리, 불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중앙시장 일대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특화스마트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용인특레시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52억5000만원(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 포함)을 투입해 시장 일대 혁신과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의 ‘안전한 밥상’ 지키는 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

수원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일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8월 31일 개인 SNS(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수원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며 대응책을 알렸다. 또 “수산물 관련 도·소매인과 소상공인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도움 드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분기에 1회씩 했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8월부터 월 1회 시행하고 있다.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요오드, 세슘

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수산물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간이 방사능측정기(T401)를 이용한 간이 검사는 매일 한다. 간이검사에서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 밥상에 방사능 부적합 수산물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산 수산

물을 포함해 급식에 포함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 식재료 구입 단계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매일 점검하고, 전통시장·회집·음식점 등의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점검 인력을 동원해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 안전은 행정의 존재 이유”라며 “내 가족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먹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하반기ESG×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충형 코칭 등이다. 교육 강사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업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김정빈 대표(수퍼빈), 박진 대표(어반비즈서울), 노순호 대표(동구발), 강지훈 대표(더벨류)가 참여한다.

또한, ‘화성SE클러스터과정’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ESG×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 ▲관련 사례 ▲화성시 창업육성 사업 안내 등이다.

신청기간은 지속가능경제학교과정은 9월 8일까지, 화성SE온라인과정은 10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이메일 및 구급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과정별 각각 선착순 30명이다.

시는 이번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팀당 총 창업지원금 1천만원과 전문멘토링이 지원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창업육성사업 참가자격도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영애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업한 대표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맞춤형 코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ESG 경영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광주시, 2023년 제2회 '광주를 칠하다' 컬러링 공모전 진행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제2회 광주 컬러링 공모전'을 진행한다. '광주를 칠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지역 명소 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광주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컬러링 도안은 △불교와 천주교의 역

사가 깃든 '천진암 성지' △현대미술의 중심지 '영은미술관'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시청'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 '경안시장' △광주시 최초 영유아 체육시설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어린이 체육센터' △광주 8경 중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경안천습지생태공원'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경기광주역' 등 총 7가지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도안을 내려받아 채색한 후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우수작 10점을 선정해 시장 상장과 총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시정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광주시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불거리, 줄길 거리를 찾아 광주시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2023년 제2회 광주시 컬러링 공모전

광주를 칠하다

기간: 2023. 9. 4. ~ 9. 22. (신청: 18:00 도록신청 마감)

대상: 광주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주요 내용: 1. 광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8개 주제와 2. 4개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친구추가를 하고,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성남에코투어 앱 인증사진을 신청 링크로 보내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급하며, 앱 참여 후기를 남기는 이들 모두에게 성남시 깃대종인 청딱따구리, 버들치, 파파리반딧불이 등 3종 그림 토크 세트를 보내준다.

문의처: 02-701-7000

성남시 게임하면서 환경 배우는 '성남에코투어 앱' 출시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에 음식 배달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벤트 열어

성남시는 증강현실 게임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성남에코투어 앱'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앱은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2019년 도에 유엔(UN)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푸른하늘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성남시가 최근 6개월간 1억2000만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교육용 플랫폼이다.

성남에코투어 앱을 접속하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미래에 온 '태코 데이'라는 가상 단체의 일원이 돼 성남시청과 울릉공원에서 인류 멸망을 막을 코드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아외 방탈출 게임과 유사한 형식의 이야기 구성(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돼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환경 메시지에 관한 참여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시는 성남에코투어 앱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해당 앱을 내려받는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음식 배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경기도 교육공무원 생태체험 연수 진행

울곡연수원 담당자, "말로만 들던 안양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 공간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다"고 소감밝혀

안양시는 지난 1일,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기도 울곡교육연수원에서 집합연수 교육 중인 교육공무원 60명은 생태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1일 오후 1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방문했다.

이날 연수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만의 강점을 살린 5인5색 순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5명의 이야기관 소속 생태대사와 한 팀을 이뤄 생생한 해설을 들으며 안양천과 화창습지를 돌아보고, 오감을 깨우는 생태놀이와 VR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생물이 돌아왔다는 강사의 설명을 들은 후 안양천과 화창습지의 다양한 곤충 및 식물들을 현장에서 만나봤다. 습지식물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배우며 통기조직을 직접 관찰해 보고, 이야기관의 상진물 물총새 이야기를 들으며 물총새 나무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울곡연수원 담당자는 “말로만 들던 안양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 공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인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체험시설을 갖춰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신우용/기자



광명시, 탄소중립 100개 과제 실적 평가 도입해 정책 속도 높인다

실적 우수 부서와 직원에 인사가점 등 동기 부여

광명시가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7월 6일 발표한 '광명시 탄소중립 추진전략 100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해 부서별, 담당자별로 평가해 우수 부서와 직원을 독려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직원 교육을 병행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내실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이를 위해 8월과 12월 기준 추진 실적을 취합하고, 12월 말 최종 평가를 통해 부서장 직무성과에 반영하고, 담당자에게는 인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부서평가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I그룹(사업부서), II그룹(행정부서), III그룹(동행정책지원센터)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담당자는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내용은 탄소중립 추진실적, 탄소중립 업무 생활 속 실천, 탄소중립 관련 교육 이수, 연계사업 발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이다.

9월 중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탄소중립 추진점검단의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행정 전 영역에 탄소중립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화하여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6일 2050 탄소

중립도시를 선포식에서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함께 성장하는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전략 100개 과제를 발표했다.

6대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인재 양성 및 인식 제고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 및 강화 ▲광명형 탄소중립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 ▲탄소중립 선도 거점 구축 ▲시민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이다. 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8천 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 평화경제특구는 그 핵심”



대한민국 신성장발전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정·윤호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 등에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되어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사) 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입을출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호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할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한의약육성법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토론회 개최

“한의학을 육성하고 한의약육성법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필요”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좌장으로 참석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의복지위원회와 경기도한의사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 개최를 위해 경기도한의사회와 간담회부터 시작하여 토론 전반적인 운영 및 섭외를 위해 같이 힘썼으며, 향후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경기

도의 조례 시행 및 조례 추진 운영방향도는 논의할 예정이다.

박옥분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 관리에 양방과 한방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관리도 필요하다. 양의사와 한의사와의 협업에 의한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우리 경기도에서 정립할 가능성을 충분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의 기초발제를 통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어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한의약육성 관련 지역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아쉽다”며 “2019년 조례도 제정됐으나 그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며,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의 주제발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진흥정책 수립 및 진흥기관 설립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 월경관란증, 어르신 치매예방, 어르신 경로당추치의 등 타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다 살피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에도 경기도 특화형 한의약 특화거리, 한방문화축제, 한의약박물관 더 나아가 경기도 한방진흥센터설립 등을 고려하여 통해 경기도형 한의약 복합문화공간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의 토론을 통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갈등을 완화할 필요성, 양의학과 한의학의 균형적인 발전, 향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한의학계에도 사회 공공실현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숙고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의약육성법제안의 개정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향후 조례안 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으며,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 김승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토론자로는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노민호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진호 익산시보건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참석하여 토론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원토론능력 향상 위한 실습형 교육 실시

김옥순·김미숙·김동희 경기도의원, 8월21일·28일 이틀 간 맞춤형 교육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8월 21일과 28일, 이틀 간 도의회에서 의원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의원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형 교육’에 참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는 논리적 사고, ▲사안별 핵심이 쟁점 파악법, ▲보도자료 작성법, ▲글 잘 쓰는 방법 등 이론 교육과 아울러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경제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제의 토론 실습이 이루어 졌다.

김옥순 의원은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장인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토론 능력이 중요한데, 이번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능력을 한 층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좀 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그를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교육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김동희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권자와의 소통인데, 보도자료를 잘 활용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

껴졌다”며 교육 중 실시한 ‘보도자료 작성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프로그램 진행은 한국토론포럼 케빈리 교수와 이성에 전문코치가 담당했다. 케빈리 교수는 “한국에서 제일 바쁜 의원님들이 시간을 쪼개 이런 노력을 하다니, 한국 정치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의원 맞춤형 교육’이란 의회가 일반적으로 결정해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원 스스로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하여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교육 프로그램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경제부지사에 고양시 지역 현안 건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30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지역 교통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현안을 건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상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오호석 행정2부지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비롯해 ‘고양시 교통망 확충’과 ‘고양시 교통망의 편의성’ 등에 대한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건의사항 및 현안 토의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교통망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토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 교통망 관련, 식사동-풍동-중산동 등의 지역은 고양시 내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세금을 납부함에도 교통망이 전혀 없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답답한 지역주민들께서는 트램이라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교통망 개선의 핵심은 고양선 연장인만큼, 경기도와 고양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을 촉구하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핑계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추가적으로 ‘고양시가 교통망 편의성을 위해 계획 중인 수요응답형버스(DRT)의 경우, 어르신들은 앱 사용법에 익숙치 않아 이용성이 떨어지는 점, 차량 내 안전벨트가 없어서 고속도로를 통과하지 못하여 마을버스와 다름 없이 운영되는 점, 유동적인 배차없이 출퇴근 시간에만 너무 집중되어 평소 시간에는 대기가 너무 길어지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는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이날 4회 간담회에는 고양, 파주 지역구 도의원들이 참석해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노인 존엄과 종사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돼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우수 실천 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의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2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일일 명예기관장으로 위촉되고, ‘노인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우수 실천 사례 발표 및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노인 존엄성 보장과 경기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여 ‘노인의 존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라는 주제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소속 전문가들의 노인인

권 우수 실천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노인인권 우수 실천사례는 △군포시노인복지관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삶을 살리는 사회복지기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인권을 이야기하다’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고위험군 와상 어르신의 개별화된 맞춤형 욕창관리를 통한 전문적 케어관리’ 등으로 복지현장에서의 사례를 공유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토론을 진행하며 “사회의 선배인 노인분들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은 나아가 노인이 될 분들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노인분들의 인권과 존엄성 보장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의 복지 방향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하지만 노인의 존엄성과 더불어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 쪽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노인분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원이자 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학영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와 하은호 군포시장, 이길호 군포시

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보건의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외에도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의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신금자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우천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동한 군포시의원, 박상현 군포시의원, 최진학 군포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최수재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장,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장 수안스님,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장 혜승스님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경기도 아파트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시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날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김태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금철환 노동국장 등과 함께 아파트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각 노동단체·관리사무소·입주자·노동자 대표들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파악하고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의 안정적 운영과 입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인권 문제와 개별법 강화에 따른 과도한 업무 편중은 심각하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환경개선, 인권보호, 고용안전보장을 동시에,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효인력의 편제제도 시스템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최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관리종사자 근로환경과 인권 실태 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주창했고, “우리나라는 공동주택문화로 공동주택



이 편하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편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조장기 노동

권익과장과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와 토론을 함께 진행했다.

김범상/기자

귀농 1번지 "경북", 도시민 유치 총력

9.1~3일까지 서울 aT센터 '창농·귀농·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경북도 및 19개 시군, 귀농귀촌 최적지 홍보 및 매력 발산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이번 박람회로 경북 매력 적극 홍보하고,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A FARM SHOW 창농·귀농·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귀농귀촌 지원정책 1:1 대면 상담존과 지자체 귀농·귀촌 홍보관을 비롯해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자체 특산물을 홍보하는 고향사랑 특별관, 농산업을 미래로 담은 스마트농업관과 미래산업관, 젊은 귀농인들을 위한 청년 농업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돼 운영했다.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19개 시군의 귀농인 및 담당 공무원 100여 명과 함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들에게 최신 농업 트렌드를 제공한다.

지자체별 귀농 및 청년 창농 지원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고소득 작물 소개 등 경북만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명실상부한 귀농 최적지임을 적극 알렸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다양한 고소득 작물과 영농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 농가가 많고, 단계별 정책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큰 응을 얻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로 경북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나곡3리 마을소득증대 및 환경 개선 지원

미역건조장 조성, '마을 안길 정비', '해수 풀장 설치'사업에 3억 5천만 원 지원 이세용 본부장, "앞으로도 나곡3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사업이 계속 성장해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지난 1일, 나곡3리 마을회(대표 김성기)와 '울진군 북면 나곡3리 마을 발전을 위한 소득증대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한 원전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나곡3리 장기 마을 발전 계획이다. 올해는 3년 계획 중 첫해로 지역주민이 제안한 '미역건조장 조성', '마을 안길 정비', '해수 풀장 설치'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기 대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 구상에 참여하면서 마을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커졌다"라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한울본부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세용 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나간다는 점은 한울본부의 사업지원사업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나곡3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사업이 계속 성장해나가기를 응원한다"라고 화답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야놀자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업무협약(MOU)」 체결

9.4. 11:00, 시청 국제의전실, 이성권 부시장과 배보찬 이사, 업무협약 체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막바지 '총력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부산시는 오늘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야놀자(대표이사 배보찬)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가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시와 야놀자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으로의 유치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놀자가 세계적인 여행 서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국내·외로 더욱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양 기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협력망(네트워크)과 각종 홍보채널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 ▲2030세계박람회 심포지엄, 국제

박람회기구(BIE) 총회, 경쟁 발표(PT) 연계 홍보 ▲주요 국제·국내 행사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한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는 "우리가 가진 폭넓은 국내·외 협력망(네트워크)을 활용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이들에게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세계 3대 메가이벤트 중 하나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힘을 보태게 돼 매우 뜻깊다"라고 전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1월 개최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무엇보다 국내·외 홍보가 중요한 상황인데 폭넓은 국내외 협력망(네트워크)을 가진 야놀자에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천영기 통영시장, "다가오는 추석명절, 모두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 당부"

폭염 속 한산대첩축제 성공개최 노고에 감사 범시민 물가안정대책 '착한 동백이 운동' 지속필요 강조 2026년까지 친환경 저상버스 63대 교체로 저탄소 녹색관광도시 자리매김

통영시는 지난 1일(금), 모처럼 두 달 만에 직원 정례회를 열고 직원 및 시민들의 유공 포상과 함께 그동안의 시청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사상 유래 없는 폭염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 8월, 통영 최대의 행사

인 한산대첩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그 동안의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한산대첩축제는 그 어느 해 보다 행사기간이 길어진 만큼 풍성한 내용으로 다양한 실행 무대로도 평가받고 있다.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던 축하음악회는 도민체전 개최식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무대행사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워 대성황을 이뤘다.

태풍으로 노심초사하며 준비했던 한산대첩 재현과 무전대로에서 열렸던 시민대항한마당 행사 등은 예상과 달리 많은 방문객이 찾아 함께 즐기면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또, 축제기간과 함께 집중적으로 전개했던 범시민 물가안정대책'착한 동백이 운동'은 관련 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상해보험제도'는 시민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이므로 대상자들이 잘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고, 하반기 본격 시행예정인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통영의 미래100년을 책임질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목적을 뒀으

며, 강력한 추진 의지로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전 직원이 업무담당자가 돼 시민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 6월부터 운영을 시작,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기저상버스는 올 상반기 10대, 하반기에 2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2026년 까지 시내버스 63대를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면 통영이 저탄소 녹색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여를 역대급 무더위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경로당 등 취약시설 총 300개소에 냉방비를 신속히 선제적으로 추가 지급했다. 이는 올 초 냉방비 긴급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 조치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은 민선8기 통영시정의 변화하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용준/기자



'대구굴기(大邱崛起), 여성의 힘으로!'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 개최

2023.9.1.(금) 11시, 엑스코 서관(전시 1~2홀) 평등관에서 개최 여성UP엑스포에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진행

대구광역시시는 지난 1일, 엑스코 서관에서,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은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올해는 '대구굴기(大邱崛起),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중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해 여성지도자, 여성단체회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등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 단체·기업을 시상하고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대구광역시 여성대상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기부와 봉사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지역발전

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남성이 대구 보건대학교 총장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 기업과 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진다. 대구광역시시장상 표창에는 (주)E.O.S(대표 류길락),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대표 김후남),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대구연맹(회장 전말순), 신나는 봉사대(회장 이종선)가 수상하게 되며, 대구광역시의회 표창은 협동조합농부장터(대표 최수환),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구시지회(회장 황혜선), 한국부인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이정순)가 각각 수상했다.

대구광역시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주간(9.1.~7.)을 맞아 전국 유일의 여성정책 종합박람회인 '2023 여성UP엑스포'를 지난 1일, 2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제1전시장 1~2홀)에서 개최했으며, 9개 여성가족분야 정책테마관을 중심으로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 온(溫)가족사랑 대축제, 명사초청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기념식 행사는 대구시정뉴스 및 (주)엑스코의 유튜브, 여성UP엑스포 공



식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상세한 행사 일정은 여성UP엑스포 공식홈페이지(www.womenexpo.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중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양성이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2일까지는 '여성UP엑스포'를

개최해 양성평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군위군을 품은 대구가 미래 50년 번영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대구굴기의 원년을 만들어 가는 담대한 여정에 시민과 함께 여성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안전경북365포럼 개최

산·학·연·관 재난관련 전문가 참여 안전정책 발굴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안전경북 365 포럼을 통해 경북안전이 나가야 할 방향과 도민 중심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 당부

경북도는 지난 31일, 도청 화랑실에서 재난관련 전문가,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북 365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보고회는 안전경북 365포럼 이사회 위원의 주재로 각 분과별로 30여 건의 정책 제안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침수 대비 다중이용시설 이용, 노후 건축물의 붕괴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도민의 안전을 한층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토론 및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은 향후 시책화 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3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실내 GPS 시범사업, 공동주택 관리자 매뉴얼 교육 콘텐츠 제작이 채택되어 경북

도 안전정책 사업으로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안전경북 365포럼은 2016년 10월에 창립되어 6개 분과(정책산업육성분과, 재난취약대상방재분과, 생활교통관광분과, 첨단재난안전기술분과, 재난대응복구협업활동분과, 지역소멸대응 안전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위원은 재난안전분야 교수,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실무 등 60여 명으로 안전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북 안전정책의 산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 이변 및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재난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전경북 365 포럼을 통해 경북안전이 나가야 할 방향과 도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농특산품 인터넷 쇼핑 시장 개척! 울진물 입점 설명회 개최

손병복 울진군수, "앞으로 새로운 유통망과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생산자는 '울진물'을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

울진군은 지난 31일, 농업, 수산업, 임업, 가공식품업 등 관내 농·수·특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 '울진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약 70여 명의 관내 생산자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울진물'에 대한 소개,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 및 경북 '사이소'쇼핑몰과의 연계, 입점 방법 및 절차, 상품 판매, 매출 정산 등 쇼핑물 활용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시간을 가졌다.

'울진물'은 경북 '사이소'쇼핑몰과 연계하여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울진군 인터넷 쇼핑몰로 농·수·특산물 판로개척과 농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울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울진물'은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인터넷 쇼핑몰로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이면 입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입점을 희망하는 농어가, 농식품 가공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후 고객센터 (☎1533-4274)로 입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지 못한 생산자를 위해 (주)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에서 입점 및 판매를 대행한다. 입점을 희망하는 농림어가는 (주)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에 입점을 요청하면 해당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인터넷 쇼핑 '울진물'은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시장"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유통망과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생산자는 '울진물'을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국가지질공원 환경부 인증서 획득

김주수 의성군수, "지질자원의 보호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혀



의성군은 지난 29일, 부산(BEXCO)에서 개최된 2023 지질공원하마당 국가지질공원 인증 수여식에서 환경부로부터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한 공원이며, 보존함은 물론 이를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이번에 인증된 의성 국가지질공원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 지형의 확인이 가능하고 공룡발자국 화석과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빙혈 등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질이 분포해 있다.

이에, 의성군은 금성산, 제오리 공룡

발자국,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12곳을 포함한 1,174.68km²를 공원 구역으로 인정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의성 국가지질공원이 가진 소중한 자원과 중요성이 널리 알려질 바란다."라며 "지질자원의 보호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한국지구과학연합회, 국립공원공단, 지질공원해설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15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의성군을 비롯한 고군산군도(전북 군산시)가 각각 국가지질공원 공식 인증서를 받았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윤경희 청송군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제/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 당부

청송군은 지난 7월 1일, 기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798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제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주민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접수기간 연장

2024년 예산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접수 9월 22일까지 연장해 올 주민제안사업 공모, 군위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 우편팩스 통해 신청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2023년 군위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의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오는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오는 9월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 22일까지 공모를 통하여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소관부서의 사업검토를 거쳐 10월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최종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홈페이지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접수가 8. 31.(금)까지였으나,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한 복구작업 등의 사유로 9. 22.(금)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경북소방, 제3회 구조정책 연찬대회 격려상 수상!

포항남부소방서 「라이다와 매핑을 접목한 효율적인 인명검색 방안」 발표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효과적인 첨단 영상 대응 시스템 구축에, 신속·정확한 현장 활동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3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회 구조정책 연찬대회'에서 격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로 올해 3회째를 맞은 구조정책 연찬대

회는 각 시·도에서 지역별 예선을 거친 19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한 포항남부소방서는 '라이다(LiDAR)와 매핑(Mapping)을 접목한 효율적인 인명

검색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국 19개 참가팀 중 5위를 차지해 격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항남부소방서의 발표자 조재선 소방교는 "이번 연찬 대회에서 경상북도의 특화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장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발표를 할 수 있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구조정책 연찬대회는 복잡·다양·대형화되고 있는 사고에 대응해



경북도,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업무협약체결

첨단기술도시 조성을 위해 지자체·원자력 공공관 손 맞잡아 첨단산업 중심, 경주에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건설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 "차세대 원자력산업 및 정주기반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를 앞장서 이끌어가겠다"고 밝혀

경북도는 지난 1일, 경주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월성원전, 방폐장, 한수원 등 원전 시설이 집적돼 있고, SMR 국가산단 등 산업시설이 갖춰진 경주에 지자체와 원자력 공공기관이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선정 ▲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 ▲교육·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 여건 조성 ▲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협력 수행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크노폴리스란 첨단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고대 그리스의 도시 이름인 폴리스(Polis)가 합쳐진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첨단산업, 연구시설, 대학과 교육, 문화, 거주 등 정주 여건이 모두 갖춰진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열악한 원전 지역의 교육, 문화, 정주 환경을 개

선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협력 기관은 분야별 특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은 원자력 공기업 중심의 기업형 자사지를 설립,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지역 정착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이미 국내에 20여 개 자사지가 운영 중이며 공기업 자사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가 운영 중인 인천 하늘고이다.

또 에너지산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홍보·교육을 위한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등 문화·전시시설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지방 이전 과학기술 인력의 지식공유와 학술 세미나, 체험·휴양 등을 제공하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경북도는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동경주지역에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바탕으로 원자력 공동캠퍼스 등 차세대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SMR 소부장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재료연구원과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등 국책 연구기관 분원도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경주지역이 첨단산업, 연구, 거주가 복합된 명실상부한 원자력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강조하며 "차세대 원자력산업 및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를 앞장서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제18회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정규 판매

11.4.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제18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1일 14시부터 불꽃축제 유료좌석 정규 판매, R석(테이블과 의자,10만원), S석(의자,7만 원) 온라인, '예스24티켓', 오프라인, S석에 한해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 가능

부산시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4일에 개최되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의 유료좌석을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판매했다.

'부산불꽃축제'는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100만여 명이 찾는 명실상부 부산 대표 축제이자 부산 특화 관광상품으로, 올해 18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의 유치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막을 열 예정이다.

불꽃축제 유료좌석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으로 구분되며, R석은 1천 석, S석은 5천 석을 배정했고, 티켓 비용은 각각 10만 원, 7만 원이다.

티켓 구입은 공식 판매 대행사인 '예스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판매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진행, 이 경우 S석만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 판매된 열리버드 티켓의 경우 약 5분 만에 매진돼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올해는 특히 인바운드

(외국인의 국내 여행) 여행사 문의가 급증해 해외 관광객 비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꽃축제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꽃 연출 확대,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행사 경호 및 안내 인력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돼 축제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불꽃축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매년 많은 인파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작년 역시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며, "올해도 모든 관람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그간 유치 노력의 대미를 장식할 부산불꽃축제를 통해 부산의 뜨거운 유치 열망을 전세계에 알려 부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티켓 예매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051-713-5035)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태/기자

대구 시민이 직접 선택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23. 9. 1.(금) 14:00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503건, 157억 원 최종 선정

대구광역시는 지난 1일(금) 오후 2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한 김중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지난달 8월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시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선정된 '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503건, 157억 원으로 ▲시정참여형 56건 73억 원 ▲청년참여형 6건 5억 원 ▲구군참여형 126건 40억 원 ▲읍면동참여형 315건 39억 원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신천 교각 하부 노후 보수(북지안전), 맨발걷기산책로 조성(환경수자원)지하철 역사 계단 미끄럼 방지패트 부착(교통) 등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시민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었다.



▲청년참여형 사업은 청년 육아정보 나눔터, 사회초년생 청년 대상 교육, 대구청년정책참여회의 등 지역 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선정됐다.

▲구군 및 읍면동참여형 사업은 지난 7월 구군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선정해 대구시 총회에 제출했으며, 구군참여형 사업 126건, 40억 원과 읍면동참여형 사업 315건, 39억 원도 이날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한편, 지난해 추진됐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새방지하차도 인도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김광석길 능소화 포토존 설치, 힐링 텃밭 키트나눔사업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6건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주민참여예산 총회 결과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중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선택한 주민참여예산이 대구를 더 살기 좋게,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신중년의 지혜로운 미술작품 이해하기

김천시립도서관,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 성료

김천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성료하였다고 밝혔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은퇴 세대들의 인문학 심화교육을 위한 전국 주요 인문대학과 공공도서관 협력 사업으로, 주제적인 인문학습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숙하고 지혜로운 노년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인문학

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자 운영된다.

김천시립도서관에서는 서희주 교수(영남대)가 '예술,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 미학을 통한 미술 작품의 이해'라는 주제로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미술의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학습하고 미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인문 토론수업을 통

해 미술이 역사, 사회, 문화와 긴밀한 관계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인문학 학적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서 마지막까지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이순영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 지혜학교,인문학 프로그램이 중년 세대의 인문 교양 학습에 대한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시민들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항구복구 위해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한다!

김학동 군수, "내년 우수기 전 복구 마무리, 지원단 중심으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다짐해

예천군이 지난 1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의 항구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복구에 박차를 가한다.

지원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설교통과장과 안전재난과장 지휘 아래 산림복지과, 농촌활력과 및 읍면 등 피해 복구 관련 부서로 편성돼 소관 업무에 따라 복구를 수행한다.

김학동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제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항구 복구 공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을 주문했다.

지원단은 부서별 계획에 맞춰 신속한 복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복구와 철저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가 심한 하천, 도로, 소규모 시설 등 소관 부서에는 토목 전담 직원 4명을 기동 배치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응급복구를 마무리한 가운데 도로, 농지, 축대 등에 추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특히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복구계획



을 수립하고 고평천 외 소하천 4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수도시설 11개소 복구공사 실시설계 등 용역발주를 추진 중이다.

김학동 군수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영농 등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지원단 중심으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는 1,38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전체 복구액 중 80%인 1,105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청렴라이브로 공직자 청렴 마인드 향상

문화공연과 교육 접목해 청렴 마인드 향상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권기창 안동시장, "직원들의 청렴 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 당부



안동시는 지난 1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안동시 공무원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

청렴라이브(Live)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려울 수 있는 청렴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연 형식의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짧은 퀴즈를 통해 청렴 지식을 알아보는 '청렴 미니 골든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청렴 감동영상 '청렴을 만나러 갑니다' ▲청렴 특강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해, 다양한 연령층의 공무원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양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특히, 청렴라이브 중 진행된 '별이 빛나는 밤' 샌드아트 공연은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퍼포먼스로 MZ세대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으며,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청렴 안동"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청렴현장 순회간담회 ▲이·통장 청렴서약식 ▲청렴간부회의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 K매운맛으로 물들이다"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개최

오도창 영양군수, "영양고추의 옳은 맛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행사의 성공적 추진 및 「영양고추의 명품화 및 세계화」 노력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서울광장에서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8일부터 3일간, 15번째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2007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영양고추 H.O.T Festival」행사는 '가장 작은 육지섬'에서 '대한민국 최대중심도시'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마케팅 행사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이다.

금년도 행사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영양고추의 옳고 정직한 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도시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며,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양군에서 탐과 정성으로 키워낸 최고 품질의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다양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60여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업체도 함께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18일(KBS 6시 내고향) 영양군 특집생방송을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며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전시관, 시민참여 체험행사, 영양고추 테마동산 등 다채로운 테마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개막식 대신 작년부터 실시한 개회나눔행사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15주

년의 의미를 담아 농능이 적극 공감하는 개회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시·홍보 부스에서는 여성군자 장계향선생이 쓴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음식 조리서인 『음식디미방』과 『문화관광』 홍보전시관을 마련하고, 서울광장 힐링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영양고추테마동산에서는 지역특색을 한껏 살린 가을농촌분위기로 도시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절단인 영양고추아가씨들이 현장을 누비며 판매활동에 앞장서고 시민들을 위한 홍보활동과 화려한 퍼포먼스는 축제장을 찾은 도시민들에게 행사의 품격을 드높일 예정이다.

특히, (사)한국농어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에서는 구매자들의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배과정부터 수확, 건조, 상품포장 등의 전 공정에 대한 사전 품질관리를 영양군 현지에서 철저하게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근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친 마음에도 변함없이 15년 동안 기다려 주신 수도권 소비자들을 위하여 올해 행사도 정성으로 준비하였으며, 영양고추의 옳고 정직한 맛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행사의 성공적 추진 및 「영양고추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9월 독서의 달 문화행사 '풍성'

진보공공도서관 다채로운 문화행사 진행

윤경희 청송군수,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행사를 즐기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청송군은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에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복합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서 문화 생활화 및 독서 문화진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독서와 연계한 원데이 클래스·전시 등 11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다육이 도자기 화분 메이킹 클래스 ▲어린이 북 큐킹: 보물 케이크 만들기 ▲드림캐처 메이킹 클래스 ▲뜨개가방(소프트안 가방) 니팅 클래스 등이 있다. 그 외 ▲전시 소감 남기기 ▲내가 이

구역의 다독왕 ▲과월호 잡지 배부 ▲한 달간 대출 권 수 두 배 ▲연체자 사면의 달 ▲도서관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이 운영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은 진보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며, 정원 내 당일접수도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행사를 즐기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윤근수/기자



동경주 지역에 자족형 복합 첨단도시 조성된다

경주시·경북도 및 원자력 관련 3개 유관기관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업무협약 2028년까지 사이언스 빌리지, 한수원 아트센터, 원자력 타운하우스 조성 예정 주낙영 시장, "이번 협약으로 경주가 과학산업 중심의 자족형 복합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택지조성/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

경주시가 동경주 지역에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 공기업 등이 다수 입주(예정)함에 따라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나섰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 1일,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원자력 관련 3개 유관기관과 함께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도·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테크노폴리스란 첨단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고대 그리스의 도시 이름인 폴리스(Polis)가 합쳐진 개념으로 첨단산업, 연구시설, 대학과 교육, 문화, 거주 등 정주조건이 모두 갖춰진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수원, 월성원전 등의 이전 공기관과 향후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우수인재 지역 정착과 입주기업 종사자의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5개 기관은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및 확보

▲부지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 ▲교육·의료·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여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추진 등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동경주 일원은 올 연말 기본계획 수립 공용 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사이언스 빌리지, 에너지 미래관, 한수원 아트센터, 원자력 타운하우스 등의 기술 산업연구 도시로 구축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그간 동경주 지역은 지리·위치상 도심과 이격된 농어촌 지역으로 교육·의료·문화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주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가 과학산업 중심의 자족형 복합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한국나눔연맹, 영덕군 취약계층 위해 식료품 기탁

(사)한국나눔연맹, 지난 30일 영덕군에 식료품 기탁, 훈훈한 화제가 돼

(사)한국나눔연맹은 지난 30일, 영덕군을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10kg 백미 1,000포와 라면 1,000박스를 기탁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영덕군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한국나눔연맹을 대표해 사회복지팀 김종미 과장과 박진주 사원이 참석했으며, 김광영 영덕군수는 매년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나눔연맹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한편, 한국나눔연맹은 지난 1992년 2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전국에 천사 무료급식소를 운영 및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매년 영덕군에 취약 사각지역 지원을 위한 물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장문화/기자



경북교육청, '교육감 거꾸로 멘토링' 실시

교육감이 듣고, 젊은 직원들이 말하는 청렴 소통의 시간 가져 임종식 교육감, "이번 멘토링에서 함께 고민한 내용을 반영,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본청 스마트오피스에서 공식사회 세대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교육감 거꾸로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거꾸로 멘토링은 기존 멘토링의 개념을 탈피해, 후배 직원들이 선배나 고위 관리자의 멘토가 되어 특정 주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거꾸로 멘토링은 근무경력 3년 미만의 교원과 지방공무원 9명을 멘토단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교권침해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양성평등 문제 등의 사회 현안 문제 ▲경북 교육정책과 관련된 젊은 직원

들의 창의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교육감이 먼저 듣고,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거꾸로 멘토링을 통해 평소 고심하던 사안을 젊은 직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인 개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멘토링에서 함께 고민한 내용들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멘토링에서는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공직문화,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 등에 대해 교육감과 멘토들이 대화를 나누며 조직 내 상하 간 인식 차이 개선에 중점을 둔 바 있다.

윤근수/기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급식의 첫걸음

구미교육지원청, 신규 채용 학교급식 종사자 연수 실시 이성희 교육장, "이번 연수가 신규 학교급식 종사자들 현장 적응에 도움 될 것 기대, 2학기도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되도록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당부해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인재관에서 2023년 신규 채용 조리사, 조리원 6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신규 학교급식 종사자의 원만한 학교 정착과 학교급식 이해도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학교급식 위생관리 교육 ▲학교급식 현장의 HACCP 적용 사례 ▲학교급식 기본방향,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연수 강사로 위촉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어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질의응답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신규 조리 종사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였다.

이성희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신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현장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2학기에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김동현/기자

경북교육청! 세대 간 이음 소통·공감 시간 가져

지난 1일, 본청 웅비관에서 '소통·공감의 날' 개최해 임종식 교육감, "세대 간 소통과 협업 역량 증대 등 조직문화 개선과 역량 강화로 경북교육의 세계화에 앞장서 줄 것" 당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금), 본청 웅비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공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입 교육국장과 직원 소개, 표창 수여식, 교육감 인사말씀, 세대 간 소통·공감의 시간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지난 1일 자로 부임한 신임 이상진 교육국장의 약력 소개와 인사말, 그리고 승진 및 전임한 교육전문직원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확산에 크게 기여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경북교육발전방안 제안 및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유공자에 대한 상장 수여식이 있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교육 여건에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북교육이 세계 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학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비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베트남과 태국 등을 직접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8월에는 과테말라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경북교육의 우수성과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교육감과 기성세대, 중간세대, MZ세대 간에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등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세대 간 소통과 협업 역량 증대 등 조직문화 개선과 역량 강화로 경북교육의 세계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주교육지원청,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영주교육지원청이 함께합니다! 전태영 교육장,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 맞춤형 청렴교육 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 밝혀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영주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청렴연수원 풍기중학교 교장 박재진 청렴교육 강사님을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공직

자 이해충돌방지법등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태영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이번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자가 청렴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

명호초, 양성평등주간 교육 실시

홍효숙 교장, "성 고정관념을 넘어 각자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혀

명호초등학교는 지난 1일(금)부터 7일(목)까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양성평등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라는 제목의 양성평등 교육 동영상 시청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 팝업북을 직접 만들면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적어 보는 활동과 속담에 담겨있는 남녀 차별적인 내용

을 양성 평등한 내용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으로 일상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깨닫고 양성평등을 위해 지녀야 할 태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6학년 최○○ 학생은 "양성평등은 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

고 소감을 밝혔다.

홍효숙 교장은 "성 고정관념을 넘어서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포항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취약계층 학생 지원

2023년 제3회 교육복지안전망 실무협의회

정영석 유초등교육과장,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학생이 발굴되고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 밝혀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31일(목),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교육복지사 미배치 초·중학교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제3회 교육복지안전망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포항시청 및 포항교육지원청 소속 센터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의 교육복지안전망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달 31일, 기존 추천된 4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천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일반, 집중, 위기로 구분되어 학생 맞춤형 현물 지원,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포항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은 교육복지사 미배치 초·중학교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여 인당 최대 100

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영석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학생이 발굴되고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전남도, '여순 10.19사건' 역사 탐방 첫걸음

'진실과 화해의 여정' 주제로 국민 1천여 명 역사 탐방 시작

전남도는 '여순 10.19사건'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순 10.19사건, 진실과 화해의 여정'을 주제로 여순사건에 관심 있는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역사 탐방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교훈 여행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근현대의 민주화 발전 과정과 여순사건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역사 탐방에선 ▲옛 국군 14연대 터 ▲만성리 형제묘 ▲낙안진전마을 ▲여치마을 ▲간문초 등 여순·순천·광양·구례의 주요 학술 사건 발생지역을 두루 살펴 본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여순사건의 진실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전문강사의 맞춤형 해설은 물론 여순사건이

한 눈에 들어오게 정리한 홍보물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본격적인 여순 10.19사건 유적지 답사 시행 전에 본 사업의 전국화와 참여 홍보를 위한 광주전남 언론인을 대상으로 여순10.19사건 유적지 사전답사를 지난 8월 31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우리 지역의 아픈 현대사로 기록되고 있는 여순10.19사건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며 "역사 탐방을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여순 10.19사건의 올바른 진실을 바로 알고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 10.19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는 전남도(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순 10.19사건에 관심 있는 국민, 초·중·고·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분야별 전문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10.19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역사 교훈 여행 사업이다.

박종배/기자



나주시-한전MCS(주), 취약계층 LED전등리모컨 설치 호응

취약계층 104가구 대상, 사회공헌 사업 눈길

전력 서비스 회사인 한전MCS(주)가 나주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MCS(주)는 올해 취약계층 104가구를 대상으로 LED전등 및 리모컨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6일 나주시와의 사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7가구에 전등과 리모컨을 보급했다.

더 밝은 LED전등을 통한 주거 생활 편의는 물론 리모컨식 전기 스위치가 보급되면 굳이 전등불을 끄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불이 꺼진 후 어두운 방 안에서의 사고 확률을 낮추고 고령자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MCS(주)는 나주시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안부를 살피고 직접 설치 등을 재능기부 형태로 무상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스마트플러그 설치, 영산포 지역아동센터 침수피해 지원, 홀몸 노인 반찬 지원, 집수리 사업(2가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윤병태 시장은 "한전MCS(주)의 ESG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응원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MCS(주)는 ESG경영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서 취약계층가구의 전기 안전점검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건·기술적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력현장서비스 및 전력량계 연관 사업 선도 등 국민의 효율적인 전기 사용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노암 3통 마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추진



남원시가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누수 및 수질, 단수 등 상수도사고가 발생하는 마을에 대하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남원시는 지난 10년간 노후 상수도관을 약 220억원 투자하여 136.8km의 관로를 교체했고, 깨끗한 수질 확보는 물론 매년 증가하는 유수율에 대해 2013년 기준 남원시의 유수율 70.4% 대비 2022년 기준은 74.7%로 4.3% 증가했다.

이 수치는 9년간 상수도 총생산량에 비해 불검침량이 약 15만톤 이상이 감소하여 상수도공기업 재무능력을 향상한 것과 같다. 금년은 약 20년 이상 노후된 상수관

로(1997, 주철관 등)로 인해 이물질 등 상수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노암 3통 마을의 노후 상수도관을 주)전북도시가스 남원지사의 노암 3통 저압관로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약 5천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차량통제, 먼지발생 등 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들과의 적극 소통과 현장대리인의 상시 배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고, 사업완료 이후 지속적인 수질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 할 것"이라 밝혔다.

이남출/기자



이상익 함평군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현장점검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 촉구

전남 함평군은 31일 "이상익 함평군수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현장점검을 지난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및 군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부처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당부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9월 30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 및 지정 고시되어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계동, 덕림동 일대에 조성하는 광주 전남 공공 국가산업단지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407만㎡ 부지에 총사업비 6,520억원을 들여 2014년 10월부터 산업단지 조성 위한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기반시설공사(264만㎡)를 지난 2020년에 완료하고 2단계 기반시설공사(142만㎡)를 오는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빛그린산단 2단계 함평구역은 2021년 12월 금호타이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이전부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빛그린산단 내 금호타이어 유치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도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함평군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올해 45톤 생산

타지역 포도보다 당도 1~2브릭스 높아 인기

청정한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포도알이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높은 '완도자연그대로 노지 해변 포도'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 해변 포도는 총 17개 농가(16ha)에서 캠벨 포도, 샤인머스켓, 거봉 등이 재배되고 있다.

올해는 45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는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완도 해변 포도는 당도가 다른 지역 포도보다 1~2브릭스(Brix) 높은 평균 15~17브릭스(Brix)로 단맛이 큰 게 특징이다.

포도는 택배 주문 또는 관내 마트를 이용하거나 완도군 군외면 해안 도로를 이용하면 당일 수확한 포도를 구입할 수 있다.

한편 군에서는 해풍의 농업적 이용 가치에 대한 연구 용역(목포대학교 산

학협력단)을 실시했는데, 완도 해변 포도의 경우 타지역 대비 기능성 물질(안토시안, 칼리 성분)과 당도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군은 올해 고품질 해변 포도 상품성 향상 시범 사업과 지난해에는 포도, 샤인머스켓 비 가림 시설 재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샤인머스켓 등 인기 있는 품종 생산량을 확대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완도 해변 포도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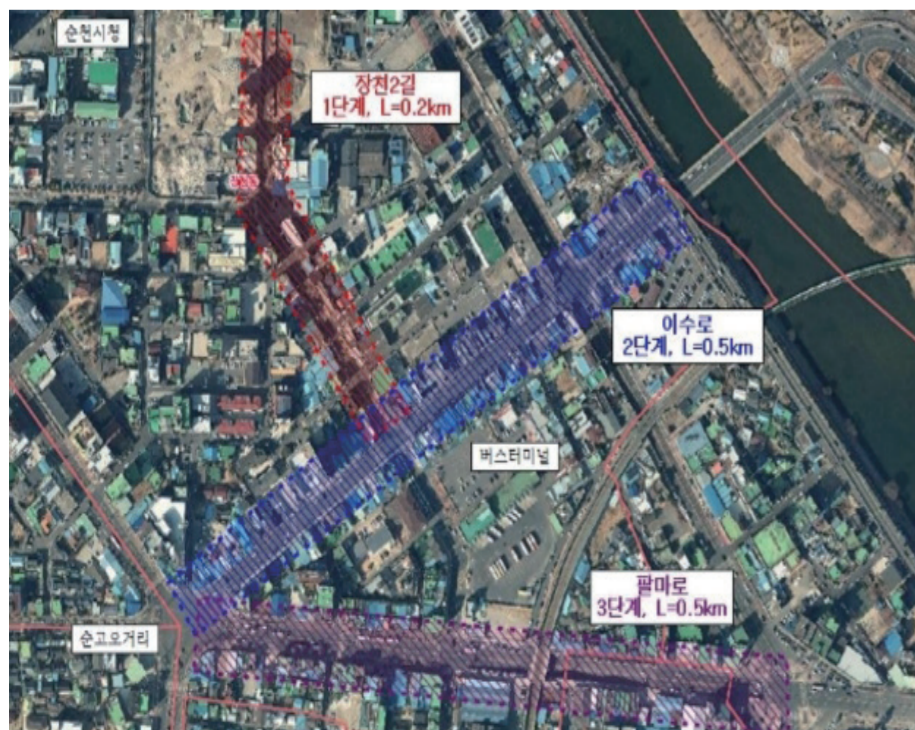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영률/기자



순천시, 이수로~팔마로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

장천2길(9월)→이수로(12월)→팔마로('24.3월) 순차적 추진



순천시가 오는 4월부터 장천2길 터미널 사거리~OK마트 구간을 시작으로 이수로~팔마로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과 연계해 장천2길, 이수로, 팔마로 일대 도로변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경관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64억 5천만 원으로 순천시가 35억 원, 한전 20억 1천만 원, 통신연합이 9억 4천만 원을 각각 부담해 시행한다.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장천2길(9월), 이수로(12월), 팔마로(내년 3월) 순서로 구간별 순차적,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우선 4월 착공구간인 터미널사거리~OK마트 구간은 차량을 우회해 운행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장천2길

(새벽거리), 이수로(장인거리), 팔마로(정원거리) 등 3대 거리를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해 터미널 이용자와 방문객 등이 많이 찾는 상권거리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도시공간재생과 또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준/기자



구례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강 성황리 마쳐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특강

전남 구례군은 8월 31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등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구례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직자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라남도에는 나주 한전 및 공대, 광주 기아자동차, 광양 포스코 등 산업체가 있다"며, "지방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 함께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산·학 글로벌(Glocal)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집

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강연은 구례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례군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세에 따라 지방의 독립성과 책임감이 강화되는 만큼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됐다.

김성현/기자



목포영어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펼쳐보자 책도, 꿈도'

9월 1일 ~ 9월 27일까지 4주간

목포영어도서관에서는 "펼쳐보자 책도, 꿈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9월 독서의 달,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영어인형극 피노키오'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쉽게 배우는 팝송'은 영어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영어책 읽기가 왜 중요한가?' 강의는 영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동안 영어 동화책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생일 케이크 만들기', '나만의 아쿠아리움', '고양이 디자인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엽서에 마음을 전해 보아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를 소개합니다'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지역민들의 독서와 문화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9월 한 달 동안 목포영어도서관은 도서대출 권수를 기존 1인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더욱 높이고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목포영어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안내

행사명	행사 내용	일시	장소	접수
인형극 피노키오 공연	독서인형극 피노키오 공연을 맡아주는 인형극 "피노키오" 공연	9.2(토) 오후 2시, 3시	8.22-8.31	방문
생일 케이크 만들기	It's My Birthday 책을 읽고 생일 케이크 만들기	9.2(토) 오후 2시, 3시	8.22-8.31	계좌
나만의 아쿠아리움	The White Fish 책을 읽고 나만의 아쿠아리움 만들기	9.9(토) 오후 4시, 5시	8.28-9.7	계좌
팝송 배우는 팝송	"You Raise Me Up" 팝송 배우기	9.9(토) 오후 2시	8.28-9.7	방문
고양이 디자인하기	They All Saw a Cat 책을 읽고 고양이 디자인 하기	9.16(토) 오후 2시, 3시	9.5-9.14	계좌
영어책 읽기가 왜 중요한가?	영어책 읽으면 영어 말하기가 쉬워지는 이유에 대한 강의 및 책 소개	9.16(토) 오후 2시	9.5-9.14	방문
앤서니 브라운 작가를 소개합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그림책 소개	9.1-9.27	-	방문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그림책 소개	9.1-9.27	-	방문
대중리수 두배로 DAY	9월 한달동안 대중리수 5권까지 10권으로 확대	9.1-9.27	-	방문

접수방법: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프로그램에서 접수
문의전화: 목포영어도서관 061-285-8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같이 하는 전북!

전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도민 1,000여명 참석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전북도는 1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단체,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희)가 주관한 올해 행사에서는 도내 양성평등문화 진흥에 앞장선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등 16개 단체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은주 주무관 등 1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평등! 같이 하는 전북!'이라는 전북도의 주제 아래, 참여자 모두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양성평등 홍보동영상 상영과 가수 헌수를 초청한 화합한마당 행사도 이뤄졌다.

기념식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상담부스 운영,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도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같이 해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개인의 자아를 비롯해 지역과 나라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이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도 활발하게 운영중이다"며 "일상 속 성평등이 일터로, 일터 내 성평등이 다시 삶으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2023 명량대첩축제는 진도부터 출발해요!

진도군-해남군 울돌목 일원에서 3일간 개최

2023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도군과 해남군의 울돌목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관광객 여러분을 기다린다.

축제 첫날인 8일에는 약목호남제례를 시작으로 진도 승전무대에서 진도강강술래, 울돌목 국악의 향연, 남도들 노래 공연 등이 진행되며 울돌목 주말장터에서는 3일간 트롯공연과 남도품바명인전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개막 행사로는 3D영상과 음향, 배우 등으로 실감나는 XR 이머시브 미디어해전과 울돌목 해상에서 해전을 재현한 드론 1,000대와 불꽃쇼의 환상적인 클라보로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

잡을 예정이다.

2일 차인 9일에는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토요민속여행, 진도씻김굿, 승전의 북놀이 퍼레이드 등 진행되며, 울돌목 바다에서는 해상 풍물뱃놀이와 해군, 해경 해상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또한, 울돌목 상공에서는 화려한 특수 비행으로 공군의 조직적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기량을 뽐내는 대한민국 특수비행팀인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로 명량대첩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3일 차인 마지막 날에는 남도잡가, 진도다시래기, 이순신과 보성 '조선수군을 재건하라', 평화의 만가행렬 등을 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특히 올해는 MZ세대를 위한 청소년

가요제, K-POP 커버댄스, 명량치어리딩 대전 등의 다양한 경연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판옥선의 화려한 멀티미디어 조형쇼와 조선수군 유등 전시, 명량대첩 스탬프ラリー(굿즈 제공) 등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량대첩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진도를 방문한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 다시 찾고 싶은 보배섬 진도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화순군, 딸기 적기 정식을 위한 꽃눈분화 검경 실시

농가 고소득을 위한 적정 정식시기 안내

화순군은 관내 딸기 재배 27개소 농가(15.1ha)를 대상으로 딸기 적정 정식 시기 결정에 도움을 주는 딸기 꽃눈분화 검경을 실시하고 있다.

꽃눈분화 딸기 생장점의 잎눈이 꽃눈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딸기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변화한다. 이를 실제현미경으로 단계를 판별하는 것이 꽃눈분화 검경이다.

딸기는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고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딸기가 가장 비싼 시기인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딸기는 모종이 꽃눈 분화된 상태에서 정식을 해야 11월부터 수확할 수 있고, 5월까지 안정적인 다수확을 할 수 있다. 꽃눈이 미분화된 모종을 정

식하면 첫 꽃이 늦게 피 딸기 수확이 1개월 정도 늦어지고 농가소득도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

이에 화순군은 8월 28일부터 관내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실제현미경을 이용한 딸기 꽃눈분화 검경을 실시해 적정 정식시기를 지도하고 있으며 검경 희망 농가는 딸기 모종을 3~5주를 가지고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년 기후 변화와 육묘 단계의 관리 방법에 따라 꽃눈분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들은 반드시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를 이용해 적정 정식시기를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경호/기자



강진 하맥축제 초대박 터트렸다

어제 개막식 관람객 등 1만5천명 북적북적

지난달 31일 개막한 제1회 강진 하맥축제가 전국에서 온 관람객 1만5,000여명이 몰려 초대박을 터트렸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군민화합한마당을 시작으로 하맥축제 개막을 알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개막선언을 겸한 인사말을 통해 "강진으로 힐링여행을 온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면서 "전국 생산량 64%를 차지하고 있는 강진 쌀귀리와 하맥의 고향 네덜란드의 맥아를 직접 들여와 만든 하맥맥주를 브랜드화한 하맥축제를 맛있게 즐기길 바

란다"고 말했다.

축제 첫날인 이날 유명 가수 목비, 김중국, 조명섭, XOX와 DJ AK 등이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들은 폐창으로 하모니를 이뤄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렸다. 관람객들과 군민들은 비트 타임과 댄스 퍼포먼스를 따라하며 어깨춤을 쳤다.

강진 하맥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군 전역 나흘만에 서울에서 왔다는 A씨는 맥주 빨리 마시기 챌린지에 도전, 1위를 차지해 남다른 기쁨을 누렸다. 충남 태안에서 왔다는 맥주 마니아 B

씨는 "하맥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강진으로 향했다"며 "이렇게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좋아하는 김중국을 직접 보고 하멜촌 맥주를 즐기니 이런 호사가 없고"고 즐거워했다.

이날 관람객 대부분은 인근 목포와 장흥, 영암은 물론 서울, 마산, 대구, 여수, 순천 등지에서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첫 날 축제 일정이 마무리된 10시 이후엔 강진읍내를 찾아 음식점, 호프집 등에서 2차를 이어가 상인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다.

이같은 초대박 인파에 힘입어 강진군이 준비한 하멜촌 맥주 1만5,000병 가운데 벌써 7,000병이 소진돼 군 관계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은 조기 품절 방지를 위해 공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행사장 안에 마련된 향토음식관도 3천여명만 여자를 팔았다.

특히 양식 어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할인 판매에 들어간 전북도 500상자 넘게 판매해 다소나마 위로가 됐다. 마량에서 생산되는 강진 참전복은 축제가 계속되는 2일까지 40%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군은 이번 축제를 어느 행사보다 더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전담경찰청 기동대원 60명, 강진경찰서 30명, 축제장내 전문경비요원 36명, 자율방범연합회원 28명을 집중 배치했다.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도 30명을 투입했다.

더불어 원활한 교통 수송을 위해 종합운동장과 군청, 터미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10분마다 운행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추윤호/기자

“도민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강원도, 가정 내 안전점검 2차 캠페인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생활 속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정 내 안전점검 2차 캠페인을 실시한다.

“가정 내 안전점검 2차 캠페인”은 가정 내 위험요소를 자율 점검하여 생활 속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는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하여 4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했고, 총 4,568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기, 가스, 건물, 소방 분야 안전항목(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우리 집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나 이벤트 안내(SNS, 각종 홍보물 수록 QR코드 등)

를 통해 안전점검 페이지(온라인)로 접속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어플 내 ‘자가 안전점검’ 메뉴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캠페인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안전점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1만 원을 200명에게 발송할 예정으로,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양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이 직접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점검 캠페인을 통해 가정 내의 위험요인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의식 향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우리 함께 걸어요.” 강릉시 걷기 좋은 길 공모전 개최

10월 6일까지 ‘우리동네 함께 걷고 싶은 길’ 공모 접수

강릉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강릉시의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고 걷기 실천에 대한 시민참여도 향상을 위한 ‘우리동네 함께 걷고 싶은 길’ 공모전을 개최한다.

강릉시 건강증진과가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걷기 좋은 길을 발굴 및 홍보하고 일상 속의 건강생활실천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강릉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걷기 어플(워크온) 가입 후 ‘강릉여지도’ 커뮤니티 공지사항 내 URL에 접속하여 ▲코스이름(5글자) ▲코스위치(산책경로) ▲소요시간(30분내외) ▲선정이유 ▲추천하는 계절 ▲함께하고 싶은 길 사진(시작, 중간, 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함께 걷고 싶은 길’ 선정은 사전 점군성 및 안전성 현장 검토 후 워크온 커뮤니티 내 설문조사를 통해 10개의 코스를 선정하여 11월 7일 결과 발표할 계획이다.

1위~3위 선정자는 강릉페이 5만원권, 4위~10위 선정자는 강릉페이 3만원권, 참가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릉시 건강증진과 원경재 과장은 “지속적으로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여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며 “‘강릉여지도’ 걷기 실천 커뮤니티와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태백시 "돌아서면...새로운 시작" 제4회 장성 탄탄마을 축제 개최



2024년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장성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염원을 담은 제4회 장성 탄탄마을 축제가 오는 9월 9일, 10일 양일간 장성중앙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돌아서면...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역 경기 부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비전선 포식도 열릴 예정이다.

축제 프로그램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9월 9일 오전 10시 석탄산업의 뜻을 기리는 폐광 깃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어른신들을 위한 탄탄마을 장수 어른신 노래자랑, 어린이 만복이 그리기 경연대회, 제2회 동발경연대회 그리고 장성동의 명소를 탐방해보는 만복이 장성탐방길(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부스와 판매부스 등을 마련되어 있으며, 동발경주도 운영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만복이 장성탐방길(스탬프투어)과 탄탄두렁길 걷기대회 참여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행사 기간 중 장성동에서 3만 원 이상 구매인증 영수증을 제시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될 예정이다.

문운기 장성동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 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미숙 장성동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장성동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개발사업’ 선정

원주시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내 18개 시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올해 60여 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5분의 골든타임!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립니다(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개인의 진료기록을 타 병원 방문 진료 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원주시 상반기 적극행

정·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개발사업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의료비 청구 방지 등의 성과와 더불어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연계, 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의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간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원주시 모든 공무원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춘천시와 춘천함이 만났다... 1일 자매결연 체결

춘천시-춘천함, 9월 1일 자매결연 체결

춘천시와 춘천함 부대가 우호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접견실에서 친선 교류 활동과 협력을 위한 춘천시-춘천함 자매결연 체결식이 개최됐다.

춘천의 지명을 딴 호위함과의 자매결연인 만큼 더욱 의미가 뜻깊다.

해군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도청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헌신에 사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중흥도시 춘천시의 지명을 사용해 신형 호위함(FX Batch-II) 8번함의 함명을 ‘춘천함’으로 정했다.

춘천함은 지난 2022년 3월 2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졌으며, 부대는 지난 3월 10일 창설

했다.

자매결연을 계기로 내년에 있을 춘천함의 1함대 예속식에 참석하는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매결연에 앞서 춘천함 승조원들은 지역사회 상호교류의 하나로 지난 31일 춘천시립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날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자매결연과 시와 춘천함 승조원들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전공을 세운 춘천시 서면 출신의 ‘충장공한백록’ 묘역에 방문해 공을 기리는 제례식에서 참배하며 조국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옛 성웅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등원/기자

속초시, 환동해 거점도시 온라인 회의 참석해 공동 번영 논의

국가간 전자상거래 확대 및 문화관광 교류 강화 협의



속초시는 지난 30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개최된 제27회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에 참석해 환동해 거점도시 간 상호번영과 공동발전 방안 등에 논의했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 무역 및 문화관광 교류의 강화를 통해 환동해 거점도시의 아름다운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4개 국가 10개 도시에서 참석한 각 도시의 대표들이 주제에 대해 발표한 후 공동 합의문을 작성·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주제발표에서 환동해 거점도시 간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 교류확대를 위한 민간분야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 회원

국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각국 발표문에서 언급되는 사항에 대해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회원 도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환동해 거점도시회의는 대한민국(속초, 동해, 포항), 중국(훈춘, 연길, 도문),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하산, 나훗카), 일본(사카이미나토, 요나고, 돗토리) 4개국 12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이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공공기관 역할 망각하면 안돼”

도, 공공기관 주요업무 보고회 열고 15개 기관 목표 및 도정 정책방향 공유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도내 공공기관장들에게 ‘재정건전성’과 ‘행정효율화’ 확보라는 역할을 망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통폐합 등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이후 처음으로 15개 기관장들과 대면하는 ‘공공기관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공공기관은 공적 대행사업을 하거나 공공재를 관리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혈세를 낭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세 낭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도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그래서 경영효율화와 통폐합을 실시하게 됐고, 이는 도지사의 소신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도청 실국장들에게도 조언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도가 1000억원 가까이 출연하고 있는데, 부탁하고, 눈치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독자적인 왕국처럼 존재해서는 안 된다. 실국장들이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도정과제를 지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민선 8기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묵은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취한다는 ‘혁고정신(革故鼎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도는 올해 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22개 공공기관을 15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통합기관 출범을 완료했다. 현재 대책재전 개회 이후 통합이 예정된 백제문화재단을 제외한 6개 출연기관은 청산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 15개 공공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기능,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양성평등…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것”

아산시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산시는 9월 1일 시청 시민홀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9. 1~7)을 맞아 아산시 주최·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경귀 시장을 비롯해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장복연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내외빈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복연 회장은 기념사에서 “양성평등은 남녀노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면서 “우리 여성단체도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주제”라면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것은 곧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도 이어진다. 양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양성성이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한국 최초 여성 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 발표일인 9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주간이다.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1부 사전공연, 2부 기념식, 3부 국내 최초 가페라 가수 이한의 힐링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으며, 저출산 극복 SNS 릴레이 챌린지, 포토부스 운영, 가족사랑 사진 전시회,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

김원호/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도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도정 펼칠 것”

9월 직원조례서 ‘체감도정’ 기치로 7대 비전 추진 강조

“도민을 사랑하는 도지사로서 도민을 두려워하는 도지사로서 겸손하게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례회에서 “그동안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도정을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반성과 성찰의 질문을 통해 큰 과오가 있었다고 자성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손색이 없었지만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오를 범했고, 좀 더 겸손하게 도정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도민을 두려워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진행되는 주민소환과 검찰조사 등은 우리의 정책과 노력이 도민들에게 체감되지 못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어떠한 결과도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과 노력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정’을 핵심가치로 삼아 달라”며 “떠다니는 정책을 땅에 발붙이는 노력과 함께, 어려운 도민들의 삶에 맞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출생증가율 10% 달성, 충북 관광객 5000만명 유치, 외국인 근로유학생 1만명 유치, 규제완화를 통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체화, 충북농업 세계화, 청주공항 민항 활주로 확보, 충북안전전 2030 프로젝트 등 충북 대전환의 7대 비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스마트도시로 발돋움…공직자 마인드 교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추진 중

천안시가 스마트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했다. 시는 지난 30일 시청 봉서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천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도시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앞서 스마트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공직자의 마인드 확산과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영태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센터장은 ‘국내외 사례를 활용한 스마트도시의 이해’를 주제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 교통, 기반시

설, 건축, 농업, 환경,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시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도시 추진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시설 및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천안이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역량을 키워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천안시가 스마트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대전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축제 ‘청년대전’

대전시는 ‘2023 대전청년주간’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엑스포 한빛탑 일원 및 청년활동공간에서 개최한다. 이번 청년주간은 2023 대전청년주간 ‘청년대전’으로 대전 청년들의 재능과 끼가 모자람 없이 완전히 갖추어진 축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에서 주최하고 대전청년내일센터와 KT&G 상상유니브 충남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15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가수 비오와 마이티마우스의 축하공연과 DJ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대환상파티’, 야외에서 대전 출신 청년 감독들의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뫼자리 1열’이 있다. 결혼 혹은 연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내애기클럽’의 토크쇼 ‘대전청년톡’, ZIP*과 청년들의 생활,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듣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주는 ‘청년정책의 참견’ 대전청년밴드공연인 ‘모여라, 즐겨라’도 펼쳐진다. 또한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대전의 귀염둥이 꿈들이 포토존과 40개의 부스로 구성되는 청년 부스도 열린다. 특히, 대전 청년주간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이 직접 표현한 청년주간 메인 포스터 공모전과 청년주간 행사를 이끌 진행자를 선발하는 진행자선발대회, 청년의 주도적 참여로 구성된 기획

단 ‘대환상파티원’이 운영되면서 청년이 만들어가는 행사라는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19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전시 청년활동공간(청춘나눔목, 청춘나눔터, 청춘두드두드)에서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청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 청년주간을 통해 청년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청년의 날의 뜻을 되새겼으면 한다”라며 “무엇보다 즐겁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 대전 청년주간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청년주간은 2018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 지역 청년에 의한 지역 청년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명륜동, '찾아가는 명륜 헤어살롱(HairSalon)' 실시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이·미용 서비스 제공 박수정 명륜동장, "행정복지센터도 지역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동래구 명륜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분숙), 벨라헤어살롱(원장 김지원)은 지난 달 29일, '찾아가는 명륜 헤어살롱(Hair Salon)'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르신 4가정에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명륜 헤어살롱(Hair Salon)'은 관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벨라헤어살롱 원장님의 재능기부로 월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김지원 벨라헤어살롱 원장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족의 부축을 받아 미용실에 오시는 모습을 보고 봉사활동을 결심했고, 이·미용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정 명륜동장은 "쉬는 날에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대구 북구 치매극복의 날 기념 구민과 함께하는 "비대면 한마음 걷기 행사" 개최

대구 북구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며 치매에 방에 효과적인 걷기를 생활화하고자 9월 한 달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을 통해 진행되며 스마트폰을 소지한 대구 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후 대구 북구 한마음 치매극복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9월 한 달 동안 15만 보를 달성한 참여자 중 250명을 추첨,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걷기 생활화를 위해 1일 걸을 수는 7,500보로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북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 한마음 치매극복 ·
대구북구 걷기 행사

치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한 걷기 행사
1899-9999

치매(愛) 의망을 나누다!

- 기간: 2023. 9. 1. - 9. 30. (1개월간)
- 대상: 북구 주민(주민등록번호 소지자)
- 방법: 1개월간 모바일 앱(워크온) 설치 및 앱 실행 및 회원가입
- 보상: 1. 걷기 기록 10만 보 달성 시 모바일 상품권 250원 지급
- 2. 2023년 대구 북구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 1등
- 3. 걷기 기록 5만 보 달성 시 모바일 상품권 100원 지급
- 4. 2023년 대구 북구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 2등
- 5. 걷기 기록 1만 보 달성 시 모바일 상품권 50원 지급

문의: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3-965-3135)
주요사항: * 북구 주민이 아닌 경우 상동 지역 대상에서 제외 * 1일 최대 7,500보 인정 * 1개월 20일 이상 걸어야 인정 * 챌린지 달성 후 응모하기 버튼 반드시 클릭

대구북구치매안심센터

남해군, 제2기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 장충남 남해군수, "앞으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이끌어 갈 주민 주도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



남해군은 지난 31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권대진 미조면 주민자치회장이 제2기 제2기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문석중 서면 주민자치회장이 부회장, 고원오 고현면 주민자치회장이 감사, 류창봉 삼동면 주민자치회장이 사무국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권대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겨 주신 읍면 주민자치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 대표단체로서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바쁘신 와중에도 늘 긍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주민자치회장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이끌어 갈 주민 주도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 주민자치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다양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준/기자

금천구, 청소년 스포츠 축제 'G리그' 개최

9월 2일 오후 2시 금천청소년센터에서 개최

금천구는 9월 2일 오후 2시 금천청소년센터에서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 'G리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가 주최하고 금천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금천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다. 연 5회 개최되며, 청소년축제기획단이 직접 전 과정을 준비한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스포츠'를 주제로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 능력과 운동 취향을 알 수 있도록 ▲ 체성분 측정 및 체력평가 ▲ 명랑운동회 ▲ 운동 게임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명랑운동회는 사전신청자 100명이 출전한다. 청소년들이 팀을 나누어 원통 굴리기, 공 굴리기, 판 뒤집기, 무작위 춤추기(랜덤 플레이 댄스) 시합을 통해 우승을 놓고 겨룬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 9~24세 청소년이라면 20여 종의 스포츠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 체험관에서는 ▲ 높이뛰기 ▲ 유연성 키우기 ▲ 빨리 뛰기 ▲ 입 바람 축구 ▲ 지압 판 멀리뛰기 ▲ 운동 게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체성분 측정 결과를 파악해 개별 참가자에게 적합한 운동을 안내하는 상담도 진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사다"라며, "스포츠 축제 'G리그'에 참여해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영주장날 쇼핑몰' 추석맞이 할인전 개최

4일~20일, 농특산품 30%, 축산품 25% 이상 할인 및 쿠폰발행 18일~30일, 쿠팡 '착한상점' 영주장날 전용관 운영

영주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공식 농특산품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 (yjmarket.cyso.co.kr)'에서 다양한 할인전을 개최한다.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추석맞이 할인 기획전'은 영주시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 인삼을 비롯하여 쌀류, 채소류 등 농특산품 최소 30% 이상, 축산물은 2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품목별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할인전 외 할인권 지급행사도 진행되는데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품목별 5,000원 할인권을 일일 500매 지급한다. 할인권은 해당 품목내 제품을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가능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다.

또한, 영주장날 쇼핑몰과 제휴를 맺은 쿠팡 '착한상점'에서는 18일부터 30일까지 영주시 전용 기획전전을 진행한다. 기획전 참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권을 발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앞서 1월에 진행된 영주장날 설맞이 할인행사는 고객들의 큰 성원으로 1주일 만에 완판돼 9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시장의 대표 쇼핑몰의 자리를 지켰다.

정교운 유통지원과장은 "영주장날에서 준비한 행사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주장날 쇼핑몰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장날 추석맞이 행사

추석맞이 및 추석맞이 쿠폰

행사기간	2023. 9. 4. (토) - 9. 20. (토)	※ 9월 21일 시로개장
대상	영주농산물(농산물)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	최소 농특산품 30%, 축산품 25% 이상	
유형	9. 20(토) 00:00~23:59 100% 할인	

행사기간	2023. 9. 4. (토) - 9. 11. (토)
대상	영주농산물(농산물)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	최소 농특산품 30%, 축산품 25% 이상
유형	9. 11(토) 00:00~23:59 100% 할인

행사기간	2023. 9. 4. (토) - 9. 11. (토)
대상	영주농산물(농산물)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	최소 농특산품 30%, 축산품 25% 이상
유형	9. 11(토) 00:00~23:59 100% 할인



봉화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출범... 민관 힘 합쳐 스마트 농업 생태계 조성에 한 걸음 도약

박현국 봉화군수, "봉화군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에 민관 협력 대응을 통해 더욱 도약할 것" 당부해

봉화군은 지난 1일, 봉화 농업의 4차 산업화와 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봉화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출범했다.

봉화군은 민선 8기 박현국 군수의 역점시책으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스마트농업 전환을 통한 미래형 영농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봉화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학술기술·경영유통·생산기술 각 분야 민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봉화농업의 첨단 혁신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환에 대한 자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스마트농업 정책동향 파악을 통한 봉화군에 적합한 정책대안 발굴 및 계획 수립,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주요기술 교육, 유통판매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봉화군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수렴하고자 지역농업인 5인이 참여해 더욱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군은 봉성면 창평리 일원에 2025년까지 15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ha 규모로 조성되는 임대형스마트팜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도 함께 개최했다. 위원회는 향후 임대형스마트팜 운영 기본계획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윤근수/기자

Geumcheon League
금천청소년스포츠축제

9.2(토)
G League

"2023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 제3회"
청소년 스포츠 축제

- 일시장소: 2023.9.2(토) 낮2시~5시 30분 금천청소년센터
- 진행내용: 이색 미션 체력경연, 스포츠게임, 명랑운동회, 인바디측정, 시상식 등
- 기타사항: 청소년 누구나! (만19~24세) 무료참여, 상품추첨!

코로나기간동안 운동과 멀어진 사람?! 나야나야!!
변함 운동 말고 이색 스포츠대회! 가보자고!!
신체능력, 스포츠 취향 탐색하기 고교생~

참여문의: 070-7006-8180 이아영

박근중 칼럼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침체 방어로 기조 전환을

한국경제가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한 안개 속에서 실물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생산(-0.7%), 소비(-3.2%), 투자(-8.9%) 3대 지표가 올해 7월 일제히 하락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상저하고(上低下高 | 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정부 전망과는 달리 하반기 첫 달부터 경기 지표가 1월 이후 6개월 만의 '트리플(Triple) 감소'를 기록하면서 '상저하고' 가능성은 더 멀어져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계속된 데다, 여름철 기상 악화와 자동차 판매 위축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됐다는 게 정부 분석이지만 하반기 경기 반등을 장담하기는 매우 어렵게 보인다.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쪼그라들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9%나 줄면서 2012년 3월 12.6% 감소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특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한 달 새 22.4%나 급감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소비와 생산 지표도 동반 감소했다. 상품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지난달 103.0(2020년=100)으로 3.2% 줄었다. 감소율은 2020년 7월 4.6% 감소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이 중에서도 승용차 등 내구재의 감소율이 5.1%에 달하는 등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7월 내구재 판매가 줄었고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면서 외부 활동이 줄어 소비활동도 감소했다.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도 109.8(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올해 1월 0.2% 감소로 시작한 전산업 생산은 상반기 등락을 반복했다. 올해 4월 1.3% 감소 이후 5-6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3개월 만인 7월엔 감소 전환한 것이다. 공공행정 6.5% 감소와 광공업 생산이 2.0%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체 감소 폭은 크지 않았지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등 경기침체 흐름이 더 빨라지는 모양새다. 의복·포피(28.5%) 등은 늘었고, 컴퓨터(-17.3%), 전자제품(-11.2%), 기계 장비(-7.1%) 등의 감소율이 특히 높았다. 반도체 생산도 같은 기간 2.3%나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지표 악화를 언급하며 기상 악화와 차량 개별소비세 변동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한가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부동산발(發) 침체 쇼크는 이미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데다 제조업 수출 출하는 1987년 8월 15% 감소 이후 3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14.5%나 급감

했고, 재고율은 123.9%로 11.6%포인트나 급등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0.8% 증가했으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2%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하락해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상승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듯 기업들이 파악한 수출길에 산더미처럼 불어날 재고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고사할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듯 중국발(發) 경제 침체, 심각한 가계 부채,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8월 28일 파업찬반투표에서 89%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했고, 기아도 8월 31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8월 31일부터 3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포스코 노조 역시 올해 임단협을 맞아 20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지난 8월 23일 20차 임단협에서 노조 측은 창립 55년 만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 핵심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올린 만큼 임금 인상 요구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60세인 정년은 64세로 연장하라는 등 무리한 내용도 적지 않다.

반도체 불황 속 수출 버팀목이 돼 온 이들 업종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산업계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져 경제위기를 증폭시킬 게 너무나 뻔하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었던 데 덧붙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정쟁(政爭)은 더욱 격화(激化)되고 있다. 여야는 일본 오염처리수·홍범도 홍상 이전·양평고속도로 채 상병 사망·방송 장악 등을 놓고 극단적 대치 중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와 연말 예산 국회에 이어 곧바로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간다. 어느 때보다 국론이 양분돼 경제가 실종될 우려가 커 보인다.

이제 경제 주체 모두가 경제살리기 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우선 정책 기조를 경기침체 방어로 전환하고 수출과 기업활동을 촉진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산과 세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세나 증세 반대로 정책 방향을 과감히 전환한 독일의 연간 70억 유로(약 10조 6,0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성장기회법 | Growth Opportunities Law)이나, 영국의 초고소득자 대상 부유세 신설에 반대하면서 현행 연 소득 12만 5,140파운드(약 2억 800만 원) 초과분은 매기는 45% 최고세율도 올리지 않겠다고 소득세 인상·부유세 신설을 반대를 결정한 노동당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정부 역량을 집중(集注)해야 할 때다.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인이다. 정책은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치든(癡鈍)의 우(愚)를 범하기 쉽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도 밀도 끝도 없는 경쟁에서 서둘러 벗어나 초당적으로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꺼져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8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성수품 가격 인하와 내수 활성화 유도를 골자로 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수산물 성수품 공급에 67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게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과 비교해 평균 5% 더 싼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오염수 대응 예산 1,440억 원을 투입해 온누리상품권 발급 할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고 1인당 할인 한도가 1만 원 확대하는 등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울여름 역대급 폭염·폭우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추석 쇠기가 녹록하지만 양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에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기게 한 것도 내수 살리기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기존 계획 대비 2배 늘려 60만 장 배포하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통상 긴 연휴에는 여행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역효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항공편 예약과 상담이 폭증하고, 항공권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자칫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하게 되면 내수 살리기보다 오히려 외화 유출로 경상수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려 하반기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을 넘어선 특단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숙박·교통 시설 확충은 당장 어렵겠지만 바가지요금과 숙박 서비스 개선, 할인 행사 시행 등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게 할 묘안을 찾는 데 더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박근중(작가·칼럼니스트)
현, 서울시자치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 소방준감
전,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전,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구국의 결단을 보며

지금 연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의 화술을 보면 기존의 화법과는 판이하게 다른 강경발언 그 자체이다.

지난 6월,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무책임한 반국가세력들은 UN안보리 북한 제재 취소 요구,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8월 광복절,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 조작선동으로 왜곡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 치고 있다""시대착오적 투쟁과 혁명 등 사기적 이념에 굴복,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기에 이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멈추지 않는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너무나 지나친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리로 국민에게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다른 쪽은 진보가 아닌 좌파들의 준동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윤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구국을 위한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왜 자랑스런 내조국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는 걸까? 수십년 전만해도 대한민국에서 '간첩 검거, 무장공비 사살' 보도가 나오면, 잘했다고 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실어 주었는데...지금 어찌 이리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쇠락해 가는 걸까?

솔직히, 지난 문 정부 때 북한에 그리도 잘해줬건만, 되돌아온 것은 우리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미사일 도발이었으니... 대한민국 땅이 지난 5년 정부 동안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니참으로 탄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는 저 북한 공산세력들에 어찌 일도 뺏기지 않고 동조하며 UN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지난 정부의 모습과 이에 편승하듯, 갈수록 증동하는 좌파들의 모습은 자칭 대한민국의 정체가 잘못될 걸이 난다.

이에 필자는 지금 대통령의 강한 발언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념논쟁이란 이분법적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호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너무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것을 그냥 방치하다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란 지엄한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 위기감이 극에 달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중심에서 비롯된 조국 수호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위기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둔갑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들을 감출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를 사랑하고 남북한이 함께 서로 적대하지 않고 교류·소통해 나가자는 진솔한 마음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서로 소통하고 왕래하며 평화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데, 통일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나, 북한은 철저한 폐쇄사회로 우리의 노력은 외형적인 쇼로 치부한다. 틀만 나면 신종 무기를 개발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아 대는 등 오로지 전쟁 준비에 광분한 집단으로서 그들이 외치는 평화통일은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다. 저 북한 공산세력은 오로지 무력적화통일로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뿐이다.

이에 필자는 군에서 장교로 예편했던 사람이고 예전 조선일보 조선닷컴 아고라 토론방에서 베스트 논객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요원한 헛소리요 망상에 불과한 지나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환상에 빠진 지난 문 정부는 마치 평화통일이 눈

앞에 와있는 양, 국민을 현혹하면서 종전 선언을 외치고, 전방에 설치된 철책을 철거하고, 전방사단을 축소하며, 유사시 전방사단이 뚫렸을 때, 즉각 응징 보복을 위한 막강한 예비전력을 없애 버리는 용서할 수도 씻을 수도 없는 국방력 파괴를 가져온 것은 누가 봐도 호시탐탐 남침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하기 좋은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줬으니 이에 대해서는 분명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정부는 북한을 돕는다는 온갖 명목을 자인해, 결국에는 저들 북한 공산세력들에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힘을 보태 주고 있는 형국이다. 저들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경제에 관한 생각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무기개발과 무력침공을 위한 광분으로 치달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 이런 북한 공산 세력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돈을 가져다 바치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저들은 이 돈으로 우리를 핍박할 무기개발과 미사일 개발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연일 마스크를 달구는 것이 바로 쌍방을 대북송금으로 인해 지금 야당의 L모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경기지사 시절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대북 송금문제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 보는 총체적으로 위기를 넘어 자칫하면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 그 자체이다.

필자는 만약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됐을까? 상상해보면, 자금의 진보로 위장한 좌파들의 준동을 보면 끔찍!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이렇진대,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어찌 철 지난 이념적 논쟁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으로 물아가려는 것은 그동안 지난 정부가 심각한 이 안보위기를 불러온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 외,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노릇이라 여겨지는 대목이다.

필자는 저들 북한 공산세력의 하는 짓을 보면 결단코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기실 그들은 평화통일을 하는 순간, 북한 주민들로부터 폭동을 당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73년간이란 긴 세월, 철저한 폐쇄사회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의 대를 이어 충성해 왔고, 이들 삼부자는 철저한 세뇌 교육으로 주민들을 유린하고 억압해 왔다.

그런데, 남북이 평화통일하면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속고 싶었고, 얼마나 핍박받고 싶어왔는가를 한눈에 알게 돼, 결국 이것이 폭발, 김정은과 핵심당원들은 언제 주민들로부터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야 할 권력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평화통일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저들의 노심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자금을 얻기 위한 위장술책이고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저들 북한 추종세력들로부터 공작금을 마련하면서 심어진 진보로 둔갑한 좌익세력들을 계속 선전 선동 캐해 대한민국 내분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유사시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는 지극히 알은 꿈수 말고는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란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필자는 자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예단해 보았다. 예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중도의 개념으로 나뉘져 왔다. 초창기의 진보세력은 솔직하게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것일 정도로 보수했지만, 어느 날부터 이 순수한 진보세력은 점차 사라지고 이 진보를 위장한 좌파세력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실정에 와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저들 좌파들은 정치, 종교, 문화, 사회, 학원가 등 모든 분야에 침투해, 사치하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교묘한 세뇌 식 교육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있으니 절로 한숨이 새어 나올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추세를 나간다면, 그동안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 세력



문화매일 영남지사장 윤근수

은 나이를 먹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어느 순간 대한민국 땅에는 좌파들의 소굴로 득실거리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함을 넘어 무섭고 끔찍스럽게 조차하다.

이렇진대, 어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와 대치한 저 북한 공산세력을 두고 UN 안보리 제재를 풀어 주라고 북한 편을 들며 종전 선언을 외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외치고 싶다면, 북한 보고 미사일과 무기를 버리고 평화통일의 장으로 나오라고 외치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어찌 이 일에는 왜? 입에 자물통을 채우고 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오 지방단체가 북한과 중국공산당 국가를 만들고 6.25전쟁에 참여한 정을성 이란 자를 위한 추모 기념공원을 짓겠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일, 무소속 Y모 국회의원이란 자가 버젓이 일본 총련 단체에 참가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젠 완전 이적행위이기에 결코 그냥 뒤서는 아니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도 어찌 이에 대해 규탄하는 소리는 어디로 가고 말았는지 너무도 어이없고 너무도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속된 말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앞에 '자유' 대신에 '인민'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될 수 있음을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복원하고, 북핵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 노력의 결과가 탄핵 구호·가짜뉴스라는 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자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비록 일각에서 통합과 화합의 장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위기를 더해가는 자금의 심각한 좌파들의 준동에 철퇴를 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란 지엄한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전적으로 손을 들어 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줘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오늘 살고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로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란 지엄한 헌법적 가치가 인정된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저들 북한 공산 세력에게 유린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단 1초도 살고 싶지 않다.

이러한까닭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구국의 결단에서 나온 자금의 강경발언에 큰 박수를 보낼 때 동시에 구보안법을 철거하가 동하여, 이 땅에 준동하는 북한 공산세력을 추종하며 국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내 조국 자유대한민국이 영원무궁 함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무조건 드려 본다.

어제 품 자랑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p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충북도, 베트남에 우리 농식품 탐색매장(안테나숍)개장

하노이 케이(K)-마켓, 도내 농식품 수출 증대 기대

충북도는 지난 30일 도내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동남아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충북 농식품 탐색매장(안테나숍)을 개장했다.

이번 탐색매장(안테나숍)은 베트남 하노이 케이(K)-마켓 사파이어점에 개장해 12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30일 개장식에 많은 현지 소비자들과 찾아와 큰 관심을 끌었다.

김치, 즉석식품, 김, 음료, 과자류 등 10개사 58개 제품이 입점하여 홍보와 판매뿐만 아니라 시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점검하며, 향후 시장성이 있는 제품 및 포도, 사과, 배 등 신선농산물을 출하시기에 맞춰 추가 입점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베트남 하노이에 2018년 처음으로 농식품 탐색매장(안테나숍)을 설치해 3개월간 운영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하이 탐색매장(안테나숍)을 추가하여 중국과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식품의 맛과 품질을 알렸고,

올해에는 이달 중순, 미국 하와이에 탐색매장(안테나숍)을 추가 개장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하노이 소재 코트라 동남아대양주 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및 충북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빈푹성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속에 탐색매장(안테나숍)이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고용노동부,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4개 주요 신기술분야의 향후 5년간('23~'27) 신규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8월 3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신기술분야 업계의 인력현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에 대한 '27년까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동 전망 결과는 과기부, 산업부 등이 실시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인력수요를 도출하고, 정부·민간·대학의 인력양성 현황과 계획을 토대로 인력공급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23~'27년)의 수준별(초·중·고)** 신규인력 수요·공급 및 수급차를 전망한 것이다.

4개 신기술분야의 '27년까지의 신규 인력수급 전망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인공지능(AI) 분야: 12,800

명 부족,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 부족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및 국제적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고급인력 해외유출 우려 등 고급수준 인력난 심화 전망

● 클라우드 분야: 18,800명 부족, '운영'부터 '개발' 전반의 인력 수요 증가

서버·소프트웨어 등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및 지속적인 시장 성장으로 인력 부족 심화, 특히, 서버의 관리보수 등을 위한 운영인력과 시스템 개발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

● 빅데이터 분야: 19,600명 부족, '융합데이터전문가' 수요 급증

디지털 혁신의 기초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분야별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데이터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

● 나노 분야: 8,400명 부족, 첨단산업 성장으로 '응용기술인력' 수요 증가

나노기술은 단독 상업화는 어려

우나, 디스플레이·에너지·환경·바이오셀스·소재 등 첨단분야의 성장으로 응용·복합 나노 기술인력의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정부 훈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적극 반영하고, 범부처 '첨단산업 인재양성 TF'를 통해 관련부처와 함께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인력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므로, 청년층에 적합한 근로여건, 조직문화 등을 기업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은 “전망결과와 현장의 실제 수급차 간 비교·분석 등 전망기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 나온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부 인력양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산청엑스포, 연이은 입장권 대량 구매로 흥행 예상

산청음료(주), 3천만 원 상당 입장권 구매약정 체결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연이은 입장권 대량 구매로 흥행 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30일 산청군 집무실에서 산청음료(주)와 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입장권 사전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이승화 산청군수, 정찬우 산청음료(주)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정식에서 산청음료(주)는 3천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엑스포 성공을 다짐했다.

정찬우 대표는 “산청엑스포를 통해 산청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한의약, 향노화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매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입장권을 구매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엑스포를 통해 전통의약을 중심으로 하는 향노화 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되고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와 휴양의 중심에 있는 힐링산청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는 경남도와 산청군,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재)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

는 행사다. 9월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개최된다.

현재 온라인(산청엑스포 홈페이지, 네이버)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엑스포 조직위)으로 9월 14일까지 입장권 사전예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격은 일반권 10,000원, 청소년권 8,000원, 어린이권 6,000원으로 엑스포 기간 중 현장구매 대비 17%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최광용/기자



1 인공지능(AI)

수요	공급						수급차			
	초·중·고	고급	계	정부·민간	대학	계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66,100	44,600	21,500	53,300	46,200	4,000	2,200	900	-12,800	3,800	-16,600

2 클라우드

수요	공급						수급차			
	초·중·고	고급	계	정부·민간	대학	계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62,600	51,400	11,200	43,800	40,300	100	2,800	600	-18,800	-8,300	-10,500

3 빅데이터

수요	공급						수급차			
	초·중·고	고급	계	정부·민간	대학	계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99,000	69,000	30,000	79,400	53,000	1,800	20,300	4,300	-19,600	4,300	-23,900

4 나노

수요	공급						수급차			
	초·중·고	고급	계	정부·민간	대학	계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초·중·고	고급	계	초·중·고	고급
14,000	10,600	3,400	5,600	3,600	-	1,200	800	-8,400	-5,800	-2,600

따뜻한 교육혁명, 행복한 학교 경북교육이 만들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인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일리, 오늘(1일) 1년 6개월만 신곡 '잡아줄게' 발매... '보컬 여신' 출격!

가수 에일리가 1년 6개월 만에 신곡으로 돌아온다.

에일리는 1일 오후 6시 새 싱글 '잡아줄게(I'll hold you)'를 발매한다.

'잡아줄게'는 가사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간결한 악기 구성과 에일리의 담백한 보컬이 인상적인 발라드곡이다. 후반부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와 어우러지는 폭발적인 에일리의 가창력은 듣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한다.

또한 앨범 커버 이미지에는 각자의 이유로 바닷속에 잠긴 것처럼, 깊은 어둠에 잠긴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의미를 담았으며 빛과 함께 찾아온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는 곡과 어우러져 더욱 몰입도를 높인다.

에일리는 지난해 3월 발매한 영어 앨범 'I'M LOVIN' AMY(아임 러빙 에이미)'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신곡을 발매하게 됐다. 앞서 라이브 티저로 신곡 음원 일부를 공개했고, 리스너들은 에일리의 파워풀한 가창력을 극찬하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에일리는 최근 홍콩 맥퍼슨 스타디움(MacPherson Stadium)에서 콘서트 '에일리 온 뮤직 인 홍콩(AILEE ON MUSIC in HONGKONG)'을 개최하며 글로벌 팬들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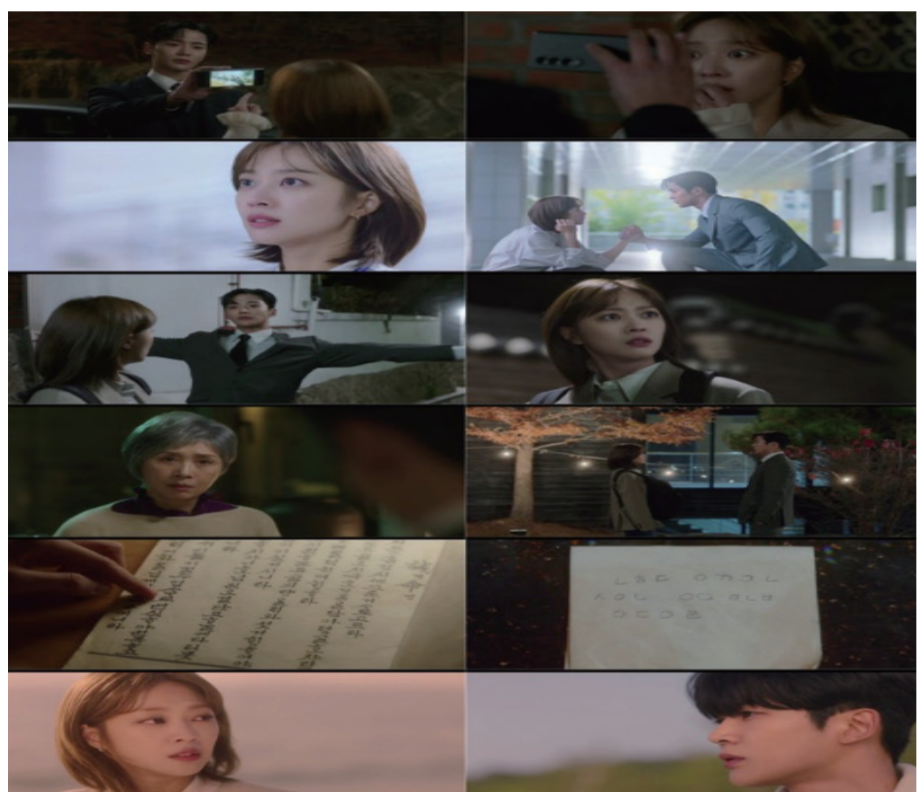
완성도 높은 무대를 꾸미며 현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일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에일리의 새 싱글 '잡아줄게'는 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최만식/기자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X로운,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 운명 자각! 전생 인연 '궁금증' ↑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 로운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자각했다.

지난 31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극본 노지설, 연출 남기훈, 제작 SLL·씨제스스튜디오) 4회에서는 장신유(로운 분)가 이홍조(조보아 분)의 '애정성사술'에 휘말려 혼란을 겪는 모습이 그려졌다. 사랑의 주술은 강력했다.

자신도 어찌지 못하고 이홍조에게 속수무책으로 이끌리는 장신유의 '주술 부정기'는 웃음과 설렘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너희 둘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라는 무당 은월(김혜옥 분)의 말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엮힌 두 사람의 인연, 베일에 가려진 전생 서사를 더욱 기대케 했다.

장신유는 이홍조에게 '애정수' 사건의 전말을 말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는 장신유에 이홍조는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게다가 "이홍조 씨 보면서 두근 두근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막 두근두근해"라면서 낯간지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장신유의 변화는 혼란 그 자체였다.

질투에 사로잡혀 권재경(하준 분)과의 사이를 휘방 놓을 수도 있으니 하루 빨리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거라는 장신유의 경고인지 고백인지 모를 말에 이홍조는 난감했다. 한편 이홍조는 '애정수' 해프닝보다, 권재경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이 더욱 신경 쓰였다. 남모름 가정을 털어놓으며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권재경의 진심은 이홍조의 마음을 흔들었다. 권재경 역시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듯했다. "보좌관님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쓸쓸한 사람이었어"라는 이홍조의 말을 떠올리는 그의 모습은 변화를 짐작케 했다.

'애정성사술'의 효능은 너무도 강력했다. 장신유는 저항할 수도 없이 이홍조에게 이끌렸다. 권재경과의 다정한 모습에 질투를 폭발하고, 이홍조 앞에선 의지와 상관 없이 '멜로 눈빛'이 장착됐다.

달라도 너무 달라진 모습에 머리를 감싸 쥔 이홍조에게 장신유는 "자책하지 마. 내 마음도 아파"라고 말하면서도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주술에 걸려서 내 맘이 내 맘 같지 않은 걸 어떡해"라며 부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홍조가 어디를 가든 그 뒤에 장신유가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고 나섰고, 이홍조의 안전 귀찮음을 위해 꺼진 가로등에 불을 밝혔다. 이홍조의 난처한 반응에 "가로등 불만 켜진 게 아니라 내 심장에도 불이 켜진 거."

반짝반짝"이라고 능청스럽게 고백을 날리는 장신유의 기습 플러팅(?)에 이홍조의 심장은 설 틈이 없이 쿵쾅거렸다.

이홍조와 장신유는 주술을 풀 방법을 찾기 위해 무당 은월을 찾아가다. 하지만 은월은 한번 걸린 주술을 풀기 어렵다고 했고, '목함의 주인' 이홍조에게는 장신유 몰래 단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은월의 말에 이홍조는 마음이 복잡했다. 바로 "너희 둘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라는 것.

이홍조는 이 사실을 장신유에게 쉽게 말할 수 없었다. 장신유의 집요한 물음에 이홍조는 자음 힌트를 줬지만, 풀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장신유는 곧 그 해법을 알아버렸다. 이홍조를 따라 나섰다가 예기치 못한 동행을 하게 된 장신유.

이홍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어느 바닷가를 찾았다. 한참을 올라 돌아선 이홍조는 장신유와 눈이 마주쳤다. 이홍조를 가만히 응시하던 장신유는 그제야 답을 알아냈다.

"너희 둘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라는 그의 목소리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이날 이홍조는 무려 '영초'와 '방양사'에 대해 조사했다. 장신유의 의미심장한 꿈도 궁금증을 더했다.

신분 차이가 확연한 소년과 소녀. 장신유는 이홍조의 어린시절 모습이 꿈 속 소녀라는 것을 깨닫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끊어낼 수 없는 운명으로 엮힌 이홍조, 장신유의 전생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목이 집중된다.

JTBC 수목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전지적 참견 시점' 악뮤 이수현, 아기자기한 캐릭터 취향 가득한 집 공개! 애니 덕후 '수현'의 일상은?

악뮤(AKMU) 이수현이 아기자기한 캐릭터 취향으로 가득한 집을 공개한다.

내일(2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기획 박정규 / 연출 김윤집, 이준범, 이경순, 김해니 / 작가 여현전 / 이하 '전참시') 262회에서 이수현은 남다른 애니 덕후력을 뽐낸다.

이날 방송에서 이수현은 아기자기한 캐릭터 굿즈와 피규어로 가득한 집을 공개한다. 그녀는 눈 뜨자마자 소파와의 물아일체로 애니메이션을 연이어 시청하는가 하면, OST를 외워서 따라 부르는 등 '애니 덕후'의 전모를 발휘한다.

아침 식사 후 이수현은 의문의 게임 메이트 '단감'과 게임 삼매경에 빠지는데, 과연 그녀의 게임 상대 '단감'의 정체는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게임 중 오빠의 전화를 받은 이수현은 "빨리 와라,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은 잔혹을 못마땅해한다.

연습실로 향하던 이수현은 주변에서 유일한 MBTI 'F 유형(감정형)'인 매니저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한마디에 웃음꽃을 피운다. 또한 취미 생활까지 쏙 빼놓은 두 사람은 서로 애니메이션 추천을 해주는 등 남다른 티키타카를 선보인다.

신곡 'Love Lee' 첫 합주 연습을 시작한 악뮤는 싱그러우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참견인들의 환호성을 자아낸다

특히 이찬혁은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카메라를 독차지하려하고, 이를 본 이수현이 "내 '전참시' 카메라다"라고 호통치는 등 찐남매 케미를 발산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찬혁은 스튜디오에서 친동생 이수현의 리얼한 모습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는 후문.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이찬혁이 작사, 작곡한 이수현의 솔로곡 '후라이의 꿈' 라이브까지 공개된다고 해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악뮤(AKMU) 이수현의 꿀잼 일상은 내일(2일) 밤 11시 10분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만날 수 있다.

최만식/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시민과건축인이하나되는축제의장 '제15회서울건축문화제' 개막

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3년 건축상 수상작 등 전시·참여 프로그램

'건축'을 주제로 전문가, 전공 학생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축문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023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건축상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대학 건축과 연합 파빌리온 기획전시 등 건축과 관련된 전시, 투어,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시는 이번 서울건축문화제는 같은 기간동안 열릴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시민과 '건축'을 주제로 소통하고, 건축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15번째로 열리는 '서울건축문화제'는 서울 시내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문화제 개막식은 9월 1일, 같은 날 행사가 시작되는 세계적인 건축문화 전시회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함께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LG아트센터 서울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을 비롯해 최우수상 2작, 우수상 6작의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각각 상장,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시는 또 심사위원 심사와는 별개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된 '시민공감특별상' 2작품의 설계자에게도 시상할 예정이다.

'2023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는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제4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 ▲제12회 대학생건축과연합(UAUS) 파빌리온 기획전시, 10월 29일까지 총 3가지 전시가 동시에 진행된다.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전시에는 올해 수상작 9개 작품의 패널과 건축 모형이 전시되며, 설계자가 직접 수상작을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도 상영된다.

또 건축상 수상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대상 수상자의 특별전도 열린다. '제40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으로 작년도 수상자인 이현우 건축가(이집건축사사무소)의 특별전시도 마련되며, 건축 전공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제12회 대학생건축과연합(UAUS) 파빌리온 기획전시'는 오는 9.5.(화)까지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 건축상 수상작, 주요 건축물을 답사하는 ▲건축문화 투어, 건축상 수상자 설계사무소를 견학하는 ▲오피스 커밍데이, 건축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좌담회 ▲건축문화 포럼 등이 마련돼 건축을 한층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프로그램은 건축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2023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 전시·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일정

은 서울건축문화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인과 시민이 하나 되는 '서울건축문화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문화

로 즐기고, 친근하게 느끼게 되길 바란다"며 "2달 동안 이어질 전시와 시민참여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제14회 부천시청소년연합축제 '무.지.개' 9일 개최

다양한 체험 공간, 문화예술 공연, 참여형 전시 등 운영

부천시는 제14회 부천시청소년연합축제 '무(한)지(성)개(성)'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천중앙공원과 부천시청 앞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청소년연합축제는 청소년이 축제 기획, 준비, 진행, 평가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축제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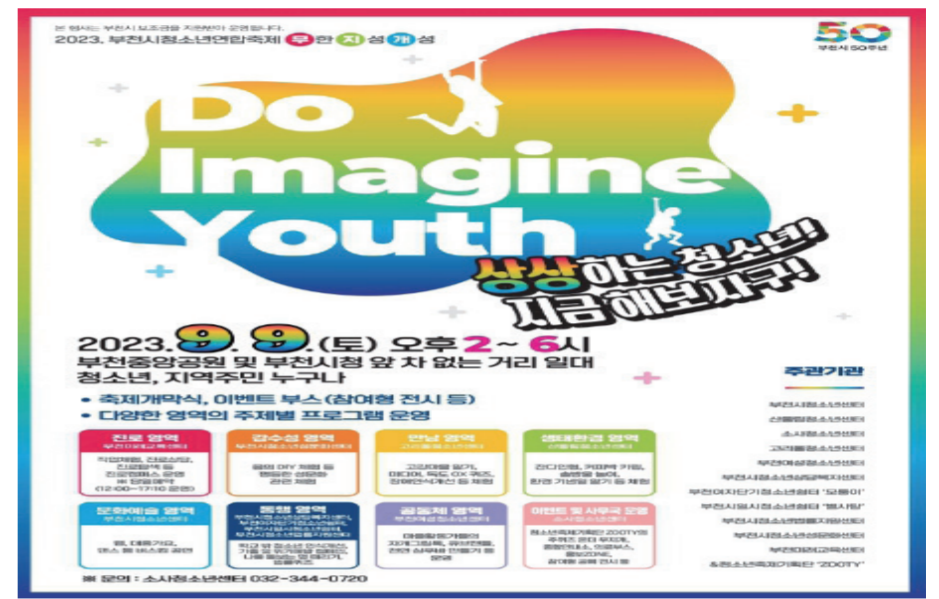
이번 축제에서는 'Do Imagine Youth! 상상하는 청소년! 지금 해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로·성인지 감수성·만남·생태환경·문화예술·동행·공동체 등 일곱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길거리 공연을 선보인다.

본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자치기구

인 청소년축제기획단 '주티(ZOOTY)'는 청소년의 고민을 나누고 응원과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주퀴즈 온 더 무지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폐목재를 활용한 청년공예활동가들의 참여형 전시 등이 준비돼 있다.

한편 본 행사는 부천시가 주최하고 ▲소사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고리울청소년센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여자단기청소년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미래교육센터 등 11개 청소년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윤용민/기자



광주광역시, "토요일엔 예술의 거리로 놀러오세요"

광주시, 2일부터 시즌2 행사...공공미술·인문학 등 운영

광주광역시는 2일부터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예술의 거리 시즌2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예술의 거리 축제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재미있는 아트공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6월 개막했다.

시즌2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차별화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공연, 인공지능(AI) 특화 프로그램, 시민 인문학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주요 행사는 ▲성인 대상 예술체험 프로그램 ▲공공미술 설치 ▲인공지능

(AI) 특화프로그램 ▲내걸에 예술뱅크 ▲아트테라피 체험 ▲공동 마스터클래스 등이다.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금박부채 면에 수채화 그리기, 모란꽃 한송이 그리기, 라인 플라스터 미니 트레이 만들기 등이 마련돼 예술체험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공공미술 설치'에는 예술의 거리 입주작가 등이 참여해 예술의 거리 건물 외벽에 대형 부조 벽화를 그리고 아트벤치와 옥상 회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제작한다.

인공지능(AI) 특화프로그램, 내걸의 예술뱅크, 아트테라피 체험, 공동 마스터클래스 등 새로운 체험 콘텐츠도 대거 선보인다.

이 밖에 예술의 거리 만화웹툰미술학원 등과 연계해 청소년 미니 웹툰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시즌1에 보내준 시민 호응에 힘입어 가을 시즌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강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마을,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계곡, 침벽굴, 축복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육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재발해부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부재수석야생화전시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공급안내

1. 공급대상 토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유치업종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원)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전자정보통신	9	999~1,602	1,371,027,000 ~ 2,155,330,000
	자동차 및 운송장비	6	1,425~3,037	1,917,195,000 ~ 4,004,284,000
	신소재	6	1,654~2,827	2,225,622,000 ~ 4,103,955,000
복합용지	메카트로닉스	17	1,361~4,313	1,885,937,000 ~ 6,038,200,000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2	2,995~3,205	6,408,397,000 ~ 6,508,135,000

2. 입주가능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전자정보통신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 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운송장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신소재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복합용지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단, A10블록(인공화학산업 집적지)은 C27193(인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재료(해당 산업체에서 제조·완료된 제품 또는 위탁 생산한 제품) 제조업체에 한함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복합용지	전자정보통신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 장비 제조업(C28)
	메카트로닉스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복합용지	• 출판업(J58)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방송업(J60) • 통신업(J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3.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에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복합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공급일정 및 장소 (*방문접수만 가능)

구분	기간	장소
입주 및 분양신청 접수, 신청예약금 납부	2023.09.18(월) ~ 09.20(수) (10:00 ~ 17: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
입주(적격업체) 심사	2023.09.21(목) ~ 09.27(수)	-
입주(적격업체) 선정결과 발표	2023.10.04(수) 10:00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dudc.or.kr)
A10블록(인공화학산업 집적지)필지추첨	2023.10.04(수) 15:00	-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2023.10.10(화) ~ 10.12(목) (10:00 ~ 17: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

5. 대금납부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가격의 10% (계약체결 시)	공급가격의 75% (매4개월 단위 3회 균등 분할납부)	공급가격의 15% (별도 통지)

6. 공급문의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관리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2층) ☎ (053)350-0337, 0334
입주심사 관련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일로 40 4층) ☎ (053)803-6022
입주업종 및 입주계약체결 관련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35 검단백토빌라 101동 301호) ☎ (053)383-8810~1

*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04.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도시개발공사
Daegu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분양문의
053) 350-0300